

2·0·1·6

제7회

성균인성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치국(治國)-사회로 나아가기



CONTENTS

• 대 상

당신은 행동하는 지성인인가 정다은 | 글로벌경제학과 06

• 최우수상

여행을 떠난 겁쟁이 사자, 용기를 되찾다 박장희 | 인문과학계열 13

우리들의 세상을 위한 걸음 이은솔 | 교육학과 20

치국(治國) - 세상에 말을 건네려는 이유 한석구 | 경제학과 27

• 우 수 상

배려를 통한 실천, 치국의 길 김나희 | 경제학과 35

배려와 올바른 사회 김현일 | 문헌정보학과 42

‘인간관계’ 내가 21개월 동안 얻은 최고의 수확물 송기승 | 사학과 48

또 다른 ‘나’ 를 향한 시작, 배려 신재원 | 영어영문학과 55

나(我)에게서 너(他)에게로 홍수인 | 경영학과 61

- 치국, 사회로 나아가기 -

• 장 려 상

나와 ‘우리’ 에 대한 책임 김예슬 | 행정학과 69

올바름, 정직의 시작과 끝 김유정 | 경영학과 76

행진 김현호 | 기계공학부 81

존중이 세상을 바꾼다 박선형 | 사회복지학과 87

대한민국, 배려로 다시 한 번 손잡다 서재현 | 유학동양학과 94
- 경험의 키워드(keyword)로 바라본 대한민국

단 하나의 마음, 예(禮) 손세환 | 경제학과 102

이제부터 효를 시작한다 야마카와레이 | 아동청소년학과 109

애인(愛人)의 마음으로 사회에 나아가기 양다혜 | 국어국문학과 115

청년(靑年)들을 위한 치국(治國) 양지성 | 문헌정보학과 122

‘인사(人事)’의 힘 원주미 | 영어영문학과 130
- 수신(修身), 제가(齊家), 그리고 치국(治國)

親舊, 사회의 시작점 정진규 | 건설환경공학부 137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대 상



당신은 행동하는 지성인인가

정다운 | 글로벌경제학과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 되어 있다”

댄 브라운의 『인페르노』라는 소설 첫 페이지에 나온 단테의 문구이다. 맨 처음에 이 문구를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다. 당연히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는 제일 비도덕적인,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책을 읽고 일 년 쯤 후, 우리나라는 대혼란 속에 빠져있다. 도덕성, 신뢰, 권위 등 그 모든 것을 잃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시점에, 처음에는 생각 없이 넘긴 저 글귀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학기에 수강한 ‘성균 논어’ 수업에서 지성인이란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배웠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과연 내가 지성인이 맞는지 생각해봤다. 고개가 자동적으로 폭 숙여졌다.

부끄럽게도 나는 지성인이 아니었다. 대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학생임에는 틀림없었지만 내가 평소에 행동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도덕수준을 지키는 중학생과 별 다를 것 없었다.

이러한 부끄러움이 든 것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일 년이 지났을 때 쯤,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내 친구들, 학점 등 숫자와 등수가 나를 담아내는 것만 같았다. 내가 마치 제일 잘나가는 대학생인 것 마냥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내 지난학기 학점은 4.4였다. 어딜 가서나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점수였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나는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다. 마치 속이 텅 빈 채로 자라나는 것처럼, 공허감이 밀려 들어왔다. 단순히 학점과 학벌로 평가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학문을 공부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다. 공교롭게도 대답은 ‘아니’였다. 나는 공부를 진심을 다해 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잘 외웠을 뿐이다.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필기를 한다. 가끔씩 교수님이 농담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웃는다. 시험기간 2주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살다시피 공부를 한다. 몇 번은 커피를 마시며 내려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린다. 시험을 보기 직전에는 ‘내가 공부한 부분이 나와야 할 텐데...’하며 긴장한다. 시험이 끝나면 후련하다. 그리고 모든 걸 잊는다.

생각해보면 이런 공부 방식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되어왔다.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라, 이기적인 내 뇌는 단기적인 기억 상실증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정보를 꾸겨 넣고는, 그 정보가 쓸데없어지면 바로 비워냈다. 그리고 내 뇌는 시험기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한, 그 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야 말았다.

이렇게 나는 ‘내가 진정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를 괴롭힐 때쯤, ‘그렇다면 나는 행동하는 지성인인가?’라는 또

다른 머리 아픈 질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기간에 공부를 하며 페이스북이나 뉴스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해 들었는데, 나는 스스로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다. 가끔씩 성균관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치졸하게 이런 사람들도 나와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나에게는 당장 내일 봐야하는 시험이 중요했고, 그래서 핸드폰을 넣고 다시 교재로 눈을 돌렸다. 그때의 나는 사회 부정의에 대한 분노도,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공감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빨리 시험이 끝나고 편하게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 세상은 바뀌어 있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탄핵, 하야 등의 단어가 오르락내리락 했고, 각 대학교마다 시국선언을 한다는 뉴스가 떴다. 그제야 나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사회이슈에 다른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때때로 동조하는 내 자신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회에서 대학생의 의사표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지난 학기 ‘현대 민주주의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으며 참된 민주시민의 의무를 사회 참여를 통해 다해야한다는 장문의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도덕적 실천과 사회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나는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부족해 나만의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부족하여 그저 빈껍데기에 불과한 대학생이 되고 만 것일까. 나는 이것에 대한 답을 ‘성균 논어’ 수업에서 얻을 수 있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인(仁)이라는 가치를 계속하여 강조한다. 공자는 인이 무엇인냐는 안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克己復禮爲仁].” - 논어(안연)

여기서의 자기(己)는 나, 내 이기심을 뜻하고 예(禮)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것이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내 자신의 사욕을, 나는 버리지 못했다. 오직 나의 현재가 중요했고, 내 세상 바깥의 일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배운 것들에 정직하지 못했고, 그럼으로 인해 현실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후에 밀려들어오는 회의감으로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나의 대한 성찰은 항상 ‘말뿐인 대학생’이라는 자조적인 문구로 끝나기만 했다.

물론 이것이 나뿐만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에게나 학생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저 수동적으로 ‘물 흐르듯이’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중 한명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유라 입학비리 사건’에 가장 큰 주축이었던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듣는 수업에서 그녀가 본 것은, 슬프게도 공부를 위해 펜을 놓지 않는 학우들의 모습뿐이었다고 한다. 교수님조차 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친구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교수님이 하는 농담에 웃고, 열심히 교수님의 말을 베껴 적었다고 한다. 그 날 그녀는 나에게 울며 전화하면서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수업에 앉아 다른 사람과 같이 필기를 열심히 해야 했는지, 혹은 교수님의 부정의함에 분노해야했는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그 수업시간에 앉아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필기를 할 나를 상상하니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더 무서웠던 사실은,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려졌단 사실이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부정직함의 달콤함과 부끄러운 회의감 사이, 나는 어디를 목적지 삼아 공부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대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오히려 약 2500년 전의 공자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먼저 자신이 말할 것을 실천하고, 이후에 말이 따르게 해야 한다[先行其言 而後從之].” - 논어(위정)

공자는 실천과 행동을 강조했다. 즉, 내가 평소에 배운 것에 ‘정직’해야 한다고 하였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학문을 터득하여 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정직하게 배우고, 정직하게 행동하자. 내가 평소에 배운 것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그에 대한 행동이 내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도록 하자. 물론 현재 시점으로는 이러한 실천들에 대한 결과가 불안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고, 의로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내 주위의 사람들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인 ‘경성스캔들’은 일제강점기 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내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도덕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 본 애국 열사들이 사실은 우리 옆에 평범하게 살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나와 같이 웃고, 사랑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달리 의로움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용기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의 사욕을 버리는 것과 더불어 용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도 나와 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협동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며,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한다[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 논어(옹야)

어느새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져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어색해져 버렸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한 발상을 할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기보다는 내 자신은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 한탄을 늘어뜨릴 뿐이다. 하지만 결국 보면 내가 서고자 하는 바, 통달하고자 하는 바는 남과 다를 것 없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행복하고,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결국 우리는 사회정의, 사랑, 용기 등의 가치를 다 같이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와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여 한 목소리를 내다보면, 혼자서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혼란스러운 날들이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다. 내가 모른 척 해버리면 그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사라져버릴 위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현실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져버리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백배 천배 더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 이제는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는 그저 두고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성립하고, 그에 맞춰 실천할 것이다. 단순히 학점을 위해 공부했던 빈껍데기인 나 자신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좋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닌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치국(治國), 사회로 나아가기. 다 같이 손을 잡고 지성인의 인(仁)의 실천을 몸소 행하자. 단순히 점수를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행동하는 지성인인가?”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최우수상

• 최우수상

여행을 떠난 겁쟁이 사자, 용기를 되찾다

박장휘 | 인문과학계열

세상은 원래 조용했던 적이 없다

세상이 어지럽다. 신문을 펼쳐보면 언제나 1면에 대서특필로 말세가 펼쳐진다. 요즘 말세는 글로벌하다. 어떤 날은 북한에서 축생 취급받는 시민들의 무저갱을 보여주고 또 어떤 날은 유럽에서 난민들이 지중해의 심해 속으로 수장되는 아비규환을 보여준다. 이제는 이런 지옥도가 그다지 낯설지 않다. 매일이 아수라장이라 웬만한 일에는 면역이 생긴 듯싶다. 그런데 기억이 닿는 한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상이 조용했던 적이 있나싶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하루도 조용히 넘어간 적 없이 매일매일 사건들이 터지고 매스컴은 난리가 나고 민중의 분노와 슬픔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끊임이 없었다. 그러니 정말 유래가 없는 그 정도의 스캔들이 아니면 더 이상 민중은 움직이지 않는다. 체념한 것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스스로를 조용히 삶의 저편에 묻어버리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어둠 속에 오늘도 우리 대중은 여전히 시끄러운 세상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에 눈을 감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언제부터 사회에 눈을 돌려버렸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 초등학교 역사시간에 한반도 우리민족에 대해 배우며 한민족의 그 장엄하면서도 통렬한 대하 스토리를 한 편의 장편소설마냥 흥미진진하게 듣고 가슴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어린 시절 TV앞에 가족들과 웅기종기 모여앉아 ‘태조 왕건’이나 ‘장보고’ 그리고 ‘이순신’같은 드라마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어떤 때는 통쾌하게 또 어떤 때는 애통하게 바라보며 내 일인마냥 열중했던 나날이 뇌리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되는 그 시절에 대망의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어 처음으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축구선수들과 그 희로애락을 같이한 붉은 악마의 뜨거운 함성을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나날들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렇게 분명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며 그 희비에 기뻐하기도 또는 통렬히 슬퍼하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은 재조차 남지 않고 원래부터 빙하기라도 되는 듯이 한없이 차가운 삭풍이 마음속을 헤집고 다닌다. 역사의 매순간에 즐거워하기도 슬퍼하기도 했던 이 마음이 식어버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아도 마냥 회색이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왜인지는 짐작이 간다. 이제는 일일이 모든 일에 반응하는데 지쳐버린 것이다. 점점 성장해가며 머리가 커져간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새로운 것이 쌓이고 싸여 이제 많은 것이 들어가고 머릿속이 가득가득 여러 가지로 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장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듣는다. 좁게는 나와 가족의 일상사에서부터 넓게는 세상 저편의 풍속도까지 변해가는 정보들이 시시각각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은 뇌리에 적재되고 새로웠던 정보들은 현 유물이 되어 빛이 바래져간다. 마냥

새롭고 신기했던 것들도 순식간에 그 찬란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이런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SNS의 발달로 그야말로 쏟아져 쏟아져 매사의 일들이 진행되고 전달되며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게 새로웠던 모든 것이 현 짝 신세가 되어 오늘날 그렇게 새로운 일은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일은 언젠가는 한 번씩 들어본 일 중 하나이고 매번 반복되는 일에 일일이 반응을 보이는 것도 지치는 일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특히 불행한 이야기 쪽에서 완연하게 들어난다. 세상의 어두운 이면들,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에서부터 일상에 잘 들어나 있지 않는 비정한 부모의 가정 스토리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화재나 안전사고 같은 어두운 이야기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스컴의 주요화재거리이다. 우리는 매 아침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매일 저녁 잠들기 직전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듣고 있다. 거기다 이런 이야기의 유형은 거의 전형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틀에 박혀서 들으면 들을수록 감흥이 없어지고 점점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냥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점점 마음이 마모되어가는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일어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불의에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세상에 눈을 감게 되는 것이다.

눈을 감은 사이 파국은 목을 조여 온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이제는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사건을 우리의 앞에 떡하니 내놓고 여봐란 듯이 우릴 비웃고 있다. 대통령이 한 비선실세의 농간에 의해 놀아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국가 전체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춰온 사정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초유의 사태다. 전대미문의 사태임이 분명하다. 분명 어중간한 일에는 단련된 민중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나보다. 연일 매스컴이 달아오르고 있다.

성난 민중들은 광화문에 모여 사태를 규탄했다. 이 오갈 데 없는 분노가 세상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분노가 분기탱천하여 우리사회 전역을 뒤덮은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올바르게 바라보기위해 잠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건의 전초들은 지금까지 잠깐씩 그 모습을 보였었다. 초기 비서실장이 경질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이던 불협화음들 속에서, 또 일명 ‘문고리 3인방’사태의 처리 과정 속에서 보이던 조각난 의사결정 파편들 속에서, 그리고 한 기업인의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각된 정경유착의 꼬리를 추적하며 터져 나온 컨트롤 타워 내부분열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사태의 단서들을 분명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간과했다. 아니,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공이 물었다. “한마디의 말을 해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은 그와 같이 근사하게 할 수는 없거니와 사람들의 말에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우며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 하였으니 만약 임금 노릇하는 것의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한마디의 말을 해서 나라를 잃을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 이와 같이 근사할 수는 없거니와 사람들의 말에 ‘나는 임금 노릇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내 말에 대하여 예! 라고만 말하고 나를 어기지 말라’고 한다 하였으니, 만약 선한데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불선한데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 한마디의 말로 나라를 잃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 「자로」

이 파국은 우리가 눈을 감고 사회에 등을 돌린 채 모든 일이 여태까지와 다르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거니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커져온 것일지 모른다. 여러 단초들이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귀를 막고 입을 닫았다. 지금까지도 많은 불의를 침묵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서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사이 우리는 위정자의 제멋대로의 논리에 장단을 맞춰왔고 폭정과 위선에 예스만을 외치며 이처럼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말로 눈을 돌린 사이 파국이 우리의 명줄을 붙잡는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조약돌을 던져야 호수가 요동친다

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갔다. 많은 분노한 대중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행동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많은 촛불과 깃발들이 있었다. 일그러진 표정의 면상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그 의지를 다져갔다. 지금까지 행동하지 않던 민중들이 이제 움직이려 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행하는 것을 여유 있게 한다.” - 「헌문」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힘들다. 그런 와중에 혼자 살겠다고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수치스럽다. 더 이상 그런 수치 속에서 살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광화문으로 갔고 그렇게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모였다. 다들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분명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 모이면 호수가 되고 낙수에 바위가 뿔리기도 한다. 이제 우리의 조약돌이 호수에 파문을 일으킬 차례이다.

예공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들어 올려 굽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복종하며, 굽은 사람을 들어 올려 정직한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 「위정」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안다. 정말 간단한 이치이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정치를 펼친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나부터 기쁘게 따를 것이다. 문제를 대하는 중에 우리는 수많은 난관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그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순리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분명 당사자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눈을 감고 수수방관하면서 어쩌면 동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원칙과 기본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할 때이다.

기본은 정직이다

치국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어만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참으로 거창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사회로 다가가는 방법을 말하는 어찌 보면 소박한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를 접한다. 나아가 언제나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접하는 우리의 방식이 또 하나의 치국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 매몰되어 잿빛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았다. 너무 힘겨운 나머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물론 나 또한 눈 감고 등 돌리는 데 동참한 사람으로서 뭐라 할 자격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간단하다. 단순하다. 그냥 눈을 뜨고 기본에 충실하게 사람을

대하듯 사회를 대하면 어떨지 이야기 하고 싶을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은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처음부터 거짓을 고하는 사람이 없듯 단순지만 기본을 지켜 정직하게 사회를 대하면 그것이 치국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우리들의 세상을 위한 걸음

이은솔 | 교육학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불이 빠알간 조그만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두꺼운 옷에 파묻혀 뒹뒹 걸어간다. 그 통통한 불을 보면서 나는 가슴 한 쪽이 저려왔다. 나는 지금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몹시도 궁금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아기들을 좋아했다. 잔뜩 짜증이 나 찹찹거리며 길을 걸어가다가도, 소세지 같은 팔과 다리로 아장아장 걷는 통통한 아기들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났다. 그 통통한 불과 양증맞은 손을 잡아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팬스레 애기 엄마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까봐 꼭 참아야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귀여운 아기들을 맘껏 보고, 맘껏 안아주고, 맘껏 놀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보육원에서 돌봄 봉사를 시작했다.

내가 봉사를 했던 보육원은 주안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대학가를 지나 한적해질 때 즈음 나타나는 ‘인천해성보육원’이었다. 울창한 나무들이 따스한 햇빛을 쬔고 있는 그 곳에 도착하면 작은 정문 옆에 서있는 자애로운 성모상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했다.

보육원에서 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다. 그 중 한 명은 또래에 비해 몸집이 조그마서 안아도 안은 것 같지 않게 가벼운 아이였다. 한번 웃으면 곱게 접히는 두 눈이 어찌나 예쁘던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생긴 것도 유난히 아가 같은데, 생김새답게 겁이 많고 잘 울곤 했다. 한번은 옷을 입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와 한참을 씨름했는데 옷을 입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도망 다니다가도 다른 아이 옷을 입히려 하면 질투심에 울면서 옷을 들고 다시 뛰어왔다. “이제 옷 입을 거야?”하며 옷을 입히려 하면 까르르 웃으며 도망가고, 도망가는 아이를 다른 봉사자가 잡아 옷을 입혀준다 해도 “아니야, 아니야~” 하며 나에게로 다시 뛰어왔다. 이것이 거의 수십 번 반복된 후에야 옷을 다 입히고 외출할 수 있었다. 곰돌이 푸우같이 생긴 아이, 유독 날 잘 따르던 아이,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날 행복하게 해줬지만 그만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던 기간에는 문득 가슴이 옥신거리도록 아플 때가 많았다. 대개 봉사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 혹은 일상생활 중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러곤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견디기 힘든 감정이 몰아치는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 입양아라는 이유로 혹은 고아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모진 세상을 만나진 않을까, 이렇게 예쁘게 웃는 아이들이 세상이 주는 상처에 많이 울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갑작스레 나를 덮칠 때마다 나는 시큰거리는 코를 매만지며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쭈서 넣어야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눈물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그들에게 단순한 동정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니까 나는 차오르는 눈물을 구겨 넣으며 아이들에게 거짓으로 더 환하게 웃어 보이곤 했다.

내 감정을 숨기며 아이들에게 거짓으로 밝은 표정, 거짓으로 밝은 목소리를 꽤나 잘 지어내던 내가 그 동안 했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와르르 무너질 뻔 했던 적이 있었다. 청얼대는 아이를 안고 방을 걸어 다니던 중

아이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가리키더니 까르르 웃으며 몹시 좋아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고개를 저으며 계속 십자가를 보며 좋아했는데, 그런 아이를 안고 나는 십자가를 보며 기도 했다. 아이의 귀에 속삭인 나의 기도는 '이 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세요.'였다. 나도 모르게 밖으로 꺼내진 나의 마음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속삭이며 겨우 참아낸 눈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결국 쏟아지고 말았다. 나는 내가 지켜보지 못할 그 아이들의 미래에 언제나 마음이 쓰였다. 귀여운 아이들을 많이 보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보육원 봉사는 점점 내 삶 깊숙이 들어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이별을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외의 시간이 무겁고 어두워도 나는 참아내며 매주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보육원으로 다시는 향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곳에서 만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꽤나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였다. 사전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은빛방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난 그 날, 나는 작고 귀여운 '그 아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조그만 눈과 조그만 코, 조그만 입술 그리고 조그만 손과 발을 가진 조그만 여자 아이. 나는 방안을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그 아이'에게 한 눈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지만 낯을 가리는 '그 아이'는 나를 매몰차게 외면했다. 꽤나 당차고, 씩달이라고 불릴 만큼 드센 성격의 '그 아이'는 내가 옷을 갈아입혀주려 한다거나, 밥을 먹여주려 하면 내 얼굴을 쥐어뜯기도 하고 바닥에 벌러덩 누워 악을 쓰며 울어대기도 했다. 때론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일주일에 두 번, 꾸준히 찾아가 포기하지 않고 이어지는 끈질긴 나의 구애에 '그 아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다.

울타리를 높게 친 '그 아이'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즈음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일이 생겼다. 나는 당연하게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방 안에선 날 잘 따르던 '그 아이'는 내 손에서 작은 손을 쏙 빼내며 선생님에게 달려가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그 당시에 나는 '그 아이'에게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서러운 마음에 집에 돌아와 투정을 부리는 나에게 어머니는 어린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밖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을 따르는 거라며 나를 달래줬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그 아이'의 행동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지키려하는 사실이 한편으론 안쓰러웠다.

그 후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나갈 일이 생겼다. 또 손을 뿌리치면 어쩌나, 내심 걱정하며 내민 손을 '그 아이'가 힘주어 잡아주었을 때 느낀 벅찬 감동은 지금도 나의 눈시울을 적신다. '내가 이 아이의 단단한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내가 드디어 이 아이의 마음의 방안에 완전히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에 나는 내 손과 맞잡은 '그 아이'의 작고 하얀 손을 다시금 고쳐 잡았다.

방에 들어가기 전 손을 닦는 나에게 보조개가 들어가게 예쁘게 웃으며 배에 작은 두 손을 올리고 배꼽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가면 안아달라고 두 팔을 벌리며 아장아장 달려오는 '그 아이'가 미치도록 사랑스러웠지만, 다른 봉사자들에게 보이는 그 아이의 자기 방어는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가 저에게 느끼는 아픔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행복을 나에게 선사하곤 했다. 한 번은 내가 '그 아이'가 있는 큰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더 어린 아기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놀이방 큰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마당에서 작은방 아기들과 놀아주게 되었다. 큰 방 아이들은 놀이방 창문에 나란히 붙어서서 밖에서 놀고 있는 동생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다. '그 아이'도 그 중 한 명이었는데, 창밖을 쳐다보던 '그 아이'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사리 같은 두 손을 여느 때처럼 내밀었다. 그러나 창문에 가로막히자 당황한 '그 아이'는 이 곳 저 곳 팔을 뻗었는데 그마저도 다 막히자 울상이 되었다. 아직 어려서 유리의 존재를 잘 모르는 '그 아이'가 정말 귀여워서 나는

당장이라도 놀이방에 들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통한 볼에 몇 번이고 뽀뽀해주고 싶었다. 그 때, 내가 느낀 기분은 ‘행복’이라 하기에 모자랄 만큼 벅찬 감정이었다.

사실 내가 ‘그 아이’를 유독 애정 하는 것은 보육원 수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보육원에서는 한 아이를 유독 애정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자제해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특정 아이에게 쏟리는 마음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의 쌍둥이 동생도 함께. 봉사자가 아이들 개인적인 생활을 선생님에게 묻는 것은 사생활 준칙 상 금지되어 있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궁금해만 하며 몇 주가 흘렀다. 몇 주 동안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 혹시 입양이 된 것인가, 아니면 잠시 다른 보육원에 맡겨졌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러던 중 오랜 시간 봉사한 봉사자 아주머니와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아이’는 동생과 함께 입양을 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저 밑으로 쿵 떨어졌다. 계속 보이지 않아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야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그 아이’를 이제 볼 수 없구나. 이제 이 보육원에, 은빛방에 ‘그 아이’는 없구나. 사실 화목한 가정에 입양되어 듬뿍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이고, 보육원에 머물렀던 자신의 어리고 어린 시절을 잊는 것이 그 아가에게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보육원에 다니며 온 마음을 줬던 아가라서 나는 이기적이게도 기뻐해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날 잊을 것이 내심, 아니 너무나 서운했다. 두 돌도 채 되지 않던 어린 아가가, 사람들을 경계하고 울타리를 치는 게 안쓰러워서 내 얼굴을 핥고, 깨물어도 다가가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서서히 다가가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외출할 때 선생님의 손이 아닌 내 손을 잡아줬을 때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젠 살면서 우연이 아니면 ‘그 아이’를 볼 수 없다니…….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사랑과 정이 부족한 아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정을 주는 게 맞고,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나의 인격이 아직 너무나 모자라서, ‘그 아이’처럼 은빛방 아가들이 제 부모 품으로, 또는 새로운 부모 품으로 또 떠나가면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남아버린 내 마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싶었다. 그 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육원 봉사를 시작했던 과거의 나를 원망했다.

뜻 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인을 이룬다. - 「위령공」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아이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려워졌다. 보육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가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실망하는 시간들이 이어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 나는, 이 정도 그릇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인걸까.

공자는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진보가 없다고 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지레 짐작하면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을 경계했다. - 「용야」

긴 시간동안 나는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했다. 왜 나는 그토록 사랑했던 인천해정보육원을 떠날 밖에 없었는지 자문했다. 그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나 눈물이 쏟아졌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킨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 나는 다시 한 번 보육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자 한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 아이’를 제외한 남은 은빛방 아이들은 갑작스레 떠난 나의 빈자리를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언제나처럼 또 다른 한명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체념했을까. 어느 쪽이 됐든 나는 은빛방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다.

인이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이 하고자 하면 인이 이른다. - 「술이」

누군가 나에게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봉사한다는 것은, 나 아닌 타인을 ‘나만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나 금전적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봉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거운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고, 때론 마음을 헤집어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을 위해.



• 최우수상

치국(治國) - 세상에 말을 건네려는 이유

한석규 | 경제학과

1. 자발적 유폐(幽閉)

“拔一毛利天下 不爲也”

(털 하나 뽑는 작은 희생으로 천하가 이롭다 하여도 하지 않는다.)

옛날 맹자께서 양주를 비판하며 인용했던 이 말이,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의 삶을 지배해 온 방식이었다. 사람이 독하지 못하여 괜히 불편을 용인하다 손해 보는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이 내 호의를 보고 나를 호구(虎口)로 오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세상을 위해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점점 줄었다. 어느 순간부터 티를 안 내려고 애는 썼지만 하나하나 계산적으로 일일이 따져가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기적으로 보이지는 않기 위해 적당한 희생과 필요한 손해는 감수했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으면 뒤로 빠졌다. 비록 약지 못해 약삭빠른 이들처럼 이득을 얻진 못했지만, 적어도 손해를 보고 씩씩거리는 일은 줄어들었다. 아니, 손해를 볼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애당초 두터운 고치 속으로 몸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상사로부터 빗겨나가려는 마음으로 살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았으니, 책임질 일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21세기 도시형 인간’으로 성장했다.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은 사람들과 나 사이에 작은 돌담을 하나 쌓게 만들었고, 안에서부터 둘러쌓은 돌담 뒤편으로 만든 작은 텃밭과도 같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누구보다 평화롭게 살았다.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관심 없는 척했고, 장난치고 놀리는 걸 좋아했지만 원래부터 무뎌뚱한 척 굴었다. 눈치가 빠르진 않아도 생각보다 많은 걸 파악할 줄 알았지만 알게 된 것조차 전부 다 모르는 척했다.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과 접하지 않으면 피곤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혼자인 게 편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홀가분하다고 느끼게 되자 세상과의 접점은 점점 줄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되자 세상사가 혼탁해질 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애써 외면하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싸움을 피하고 갈등을 외면하고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며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을 때도 부러 중립적인 척을 했다. 그렇게 피하는 대신 나는 내 자신 속으로 끊임없이 침잠해 그 작은 세계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다. 허유, 소부인척 굴었지만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수많은 역설적인 회의 속에서 말이다.

2. 서먹서먹한 세계에 발을 담그다

막 복학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유행했던 인터넷 농담 중에 하나는 내 학번에 대한 놀림이었다. (“11학번(공룡 화석)이 개강총회에 온 모습이다”, 라니.) 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했던 그 나이 많던 복학생 선배들이 어느덧 나의 모습이 돼

있었다. 세상에 비추어보면 아직 젊고 어린 나이인데도 이 작은 커뮤니티 안의 나는 이제 과거의 유물, 혹은 때가 지난 유령 같이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2학년밖에 안 된 학년이 주는 괴리감은 열심히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동기들을 볼 때마다 더욱 커졌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애매한 경계선에서 자꾸만 비틀렸다.

그렇게 헤매는 사이 일 년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3학년 2학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그래도 스스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중이다. 사실 정신이 없고 바쁜데다 확신까지 없는 길을 걷는 건 매우 막막한 일이다. 그것이 더욱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즉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맞부딪히며 살려고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그렇게 살면서 가장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꿈꾸는 언론사 입사를 위해 9000자에 가까운 자기소개서도 써본다.

많은 것들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자소서 앞의 나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딱히 쓸 말이 없었다. 부족한 스펙, 딱히 매력적이지 않은 삶, 미천한 경력과 경험. 당연히 초장부터 떨어졌다. 내가 봐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나로부터 사회가 가능성을 찾아줄 일이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리라. 앞으로 5~6년은 매진하기로 스스로 다짐한 험난한 길의 첫 걸음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3. 사막과 같은 무미건조함을 꿈꾸며 조용한 고함을 지른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언론계 입사를 준비하는 것은 성격과 괴리감을 갖는 일이다. 직접 드러나든 간접적으로 드러나든 언론의 일이란 결국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받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신해야 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 몰랐던 것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 누구보다 한 사회에서 많은 걸 보고 들으며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열정페이가 비난받는 세상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전부 반납해가며 무한 반복되는 야근으로 온몸이 상해도 그렇게 노력한 결과물조차 가장 냉정한 형태의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하면 욕을 먹지만 그마저도 안 될 때면 존재조차 망각되는 존재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책임의 대가 역시 확실한 삶이다.

1, 2학년 때의 방송국 생활이 그랬다. 밤을 샅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내 몫으로 주어진 - 많게는 1주에 6개 정도의 - 오디오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살았다. 바쁠 땐 금요일 자연과학캠퍼스 아침 방송을 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에서 수원으로 갔고, 그마저도 힘들다고 느끼면 전날 밤에 내려가 방송국에서 자고 방송을 마친 후 사우나를 가던 날들이 빈번했다. 날을 넘겨 늦은 밤 집에 돌아가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수습 국원 평가를 준비하던 1학년 여름방학 땐 거의 2박 3일을 꼬박 새가며 글을 고쳤다. 두 번의 긴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그 혼한 유럽 여행을 한 번 못 가본 채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방학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활발하고 유쾌한 동기와 선후배들 사이에서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주변을 맴돌 때가 많았다. 소주 2~3병까지는 밤새도록 마시면서도 거뜬히 견뎌내는 술자리에서 소주 반병을 넘어가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으니 그 생활이 평탄할 리가 없었다. 2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안 맞는 것 같다,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생각해보면 임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적응을 못한 것일지도 모를 생활이었다.

가장 슬펐던 것은 그토록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봐달라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방송국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잘 듣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같았다. 대신 아침마다 방송을 트는 게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를 받았던

것만 여러 번이었으니 정말 자기 위안 수준의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을 때가 많았다.

이래저래 괴로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고 임기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간히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는 오디오 방송 멘트를 쓰고 있는 까닭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뇌하며 쌓아올리는 생각들을 세상에 건네는 일이 주는 매력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어도 이 넓은 세상 어디에서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글을 썼다. 사람들과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내 생각을 글이라는 형태를 통해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의 '나'는 언제나 신나 있었다. 20분짜리 방송 하나를 위해 거의 한 달 동안 음악을 골라 깎이는 타이밍을 재고, 문장과 문단을 바꾸고, 내용을 수정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을 꿈꿨다. 아니, 적어도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순간만이라도 오기를 꿈꿨다.

지향하는 글이 사막과도 같은 무미건조한 느낌 속에서 초라하게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느낌이라면, 그 느낌을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 부족한 능력 안에서 최대한 애를 썼다. 비록 직접 마주볼 때는 사람의 눈조차 마주하는 것마저도 힘겨워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을 방송으로 전할 때는 사람들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애썼다.

침묵과도 같은 고함이라도 그 누구보다 크게 지르며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든 벽을 밀고 나아가려고 했다.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글 솜씨가 빼어나진 않아도, 만인이 좋아할 만큼 매력적이진 않아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글을 쓰며 세상에 말을 건네려고 한다. 말을 건넬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를 쓴다. 그것이 이 시대에, 조용한 내가 다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이다.

4. 그리고

여전히 나는 유명과 같은 존재다. 럼블피쉬의 <I GO>를 흥얼거리며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항상 믿지만, 사실 그 때가 오긴 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내가 태어난 이 사회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존재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꼭 내가 아니어도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저 평소의 마음가짐처럼 내 머리털 하나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조용히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른다. 그 어느 것도 사실 확인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로, 내 생각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사람들이, 사회가, 세상이 그것을 원하는지는 사실 정말 모르겠다.

게다가 설상가상 나란 존재는 우선 스스로 드리워 둔 장막부터 죄다 벗겨내야 비로소 세상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다. 성격이 변하는 건 힘든 일이기에, 앞으로도 고슴도치처럼 위기 때마다 가시를 세우는 일 역시 빈번할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선 흥분해서 말을 잘 못하니 떨어질 면접 역시 무수히 많을 것이고, 어쩌면 면접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해 우울할 일들 역시 허다할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사회와의 만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만 같다. 항상 자신감은 넘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일까 봐 두렵기까지

하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사회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기는 하는 것일까. 고민은 끝이 없고, 시름은 그칠 줄을 모른다.

73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온전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공자께서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입신하는 방법을 걱정할 것이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주게 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니 힘들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한다.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세상에 끊임없이 말을 건네려고 한다.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을 다한다면 언젠가 방송에 담은 진심을 알아봐줬던 익명의 그 누군가처럼 나의 글도, 나란 존재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나타나 줄지도 모르니까.

내가 다하려는 사회적 책임은 비록 지금은 그것을 건네줘야 할 수취인조차 불분명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걸고 혼자만의 약속일지라도 지키려 애를 쓴다.

될 때까지, 해야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지운 존재의 작은 ‘책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하여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에도 배는 길을 헤치며 나아갔다”

-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中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우 수 상

• 우 수 상

배려를 통한 실천, 치국의 길

김나희 | 경제학과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큰 아픔보다는 나의 작은 손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물론 텔레비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지만, 그들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취지로 할당된 봉사활동 시간도 나에게서는 그저 의무일 뿐이었다.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일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딱 채워야 할 봉사 시간만큼만 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 보다는 내신 점수 1점을 더 받고, 모의고사 등급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그토록 선망하던 대학 생활을 기다리며 나는 ‘대학교에 다니며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었다. 그 중에는 ‘사회 문제에 관심 갖기’,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대학생 되기’ 그리고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하기’도 있었다. 여기에 거창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내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 이타적인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심지어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대단해 보였다. 자신의 이름이 박힌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에 참가하며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이 정의로워 보였다. 텔레비전에서 그런 대학생들을 보며 ‘지식인이란면 응당 그래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만큼은 아니어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대학교에 들어간 뒤, 나는 내 ‘대학생 로망’을 실현시켜줄 봉사 동아리를 찾아 나섰다. 봉사활동 동아리는 꽤 많았지만 모두 내 구미에 맞지는 않았다. 이름은 ‘봉사’ 동아리지만 실상은 ‘술’ 동아리라는 소문도 무성했고, 동아리의 목표도 뚜렷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다 딱 나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았다. 바로 ‘레인보우 스쿨’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동아리였다. 평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큼의 관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남의 나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안타까움 반,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리를 택한 것은 배움과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화요일에는 ‘이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며 그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일요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시경』삼백 편을 외우더라도 정치를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의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혼자서 대처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 다한들 어디에 쓰겠는가? [誦詩三百 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 자로 5장

고등학교 때까지 참 많은 것을 배웠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쓰일지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행동으로 연결되지도 못했다. 배움(學)이

습(習)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1차원적인 지식, 정보에 그친 것이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하고 방치하면 고물이 되듯이 나의 배움도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동아리를 통해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나’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와 같은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배웠다.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세계적인 이민 현상 등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을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하며 알아보았다. 그들에 대해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없던 관심과 애정이 생겼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발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동아리원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가장 큰 장벽인 언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가르쳐 드렸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금법 개정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찾아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그들에 대해 배우며 내가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의 배움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배움이 습으로 연결됨으로 인해 내가 성장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 것 이다.

일 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항상 보람차고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기 때문이다. 남들은 다 노는 일요일에 봉사활동에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친구들이 ‘오늘 뭐해? 나가서 놀자’ 라고 연락이 오면 ‘나도 놀고

싶은데 그냥 아프다고 하고 가지 말까?’ 라는 고민을 했다. 또,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본가에 내려가도 하루 만에 서울로 다시 올라와야 했다. 세 시간 넘게 걸려 집에 도착했는데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올라오면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더 쌓이는 기분이었다. 시험기간에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는 했다. 심지어 봉사 시간을 받지도 못하니 ‘내가 무엇을 얻고자 이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말이다.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니, 남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而由人乎哉]
- 안연 1장

나는 한글학교에 갈 때면 내 이익과 봉사활동을 저울질하며 고민하곤 했다. 그리고는 결국 친구들과 노는 것, 집에서 더 쉬는 것, 시험공부를 하는 것, 봉사 시간을 주는 다른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글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결국 나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극복한 것이다.

한번은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을 누르고 한 시간이나 걸려서 한글 교실에 도착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바람에 허무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선배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걸 아니지 않아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매주 오는 줄 아나. 안 오면 안온다고 미리 말해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게 오는 건데 고마운 마음이 없나 봐요. 진짜 이럴 때마다 너무 화나요”

“학생 분들이 잘 안 나오는 시기가 있어.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시니깐 엄청 바쁜 철이 있대. 너무 바빠서 연락하시는 걸 까먹었겠지.”

“그리고 숙제를 내줘도 해오지도 않아요. 한글을 배우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복습을 안 해오시니깐 진도도 안 나가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업시간에 떠이야기도 자주하시고”
“사실 그분들이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야. 힘들게 일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쉬 시는데 한글 공부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야.”

“아니 그래도 이왕 힘들게 오셨으면 공부는 제대로 해야지 않아요?”

“그 분들한테 문법이나 어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거니깐”

나는 선배와의 대화에서 내가 나의 입장에서만 학생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전까지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썼었다.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여러 문법 규칙을 알려드리며 외우기를 강요하고, 잘 외워 오시지 않으면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했다. 그것에 내가 생각하는 공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문법들이 학생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학생분들은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말들을 배우고 싶었을 것이다. 나와 사소한 것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닫자 내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 학이 16장

나는 남이 나와 같지 않으며, 남의 입장에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함[恕]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 뒤 한글학교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우선,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냈는지 대화를 하였다. 생활하면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힘든 점은 없었는지도 물어보았다. 수업은 문법이나 쓰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했다. 식당, 가게, 병원에서 하는 대화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들을 알려드렸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귀한 시간을 한글 교실에 써도 아쉽지 않게 수업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간장 공장장-’ 같은 발음 연습 문장도 준비해 가고, 역할극도 해보았다. 다행히 학생들도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였고, 수업도 더 열심히 들으셨다. 결석도 많이 줄었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린다.’ 는 말은 너무 거창하게 들리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풀어 쓰면 ‘치국’이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치국’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고위 관리직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도 치국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치국’은 배움으로써 ‘참 나’를 이루고 이를 실천(習)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큰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의 첫 걸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배려’ 라고 생각한다. 배려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私益]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노력하는 것,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恕] 도울 것을 찾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할 때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고, 나의 관점에서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돕고자 한다면 그 행동이 쓸모없을 수도 있다. 나는 세미나 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고, 실천함에 있어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극복하고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주고자 노력했다.

물론 내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아주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치국’을 실천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내가 훗날에 더 많이 배워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치국’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배려와 올바른 사회

김현일 | 문헌정보학과

“어디서 사회생활도 안 해본 게 어른한테 꼬박 꼬박 따지고 있어.”

가게 주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얼얼해졌다. 중학교 3학년 진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혼자 살게 되어 월세를 벌기 위해 학교마저 관두고 급하게 시작했던 동네 서점에서의 내 첫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개점부터 마감까지, 서점의 책들을 쉴 새 없이 정리하고 나르며 혹시 실수라도 할 지 조심하며 최선을 다 했다. 처음으로 해보는 노동이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번다는 생각에 월급날만을 기다렸다. 첫 월급날이 지났지만 주인은 지금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나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어려웠던 내 형편을 알고 나를 채용해준 분이었기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길어졌고, 결국 두 달이 지나도록 나는 내 일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 하루 빨리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자꾸만 임금지급을 물어보는 나에게 주인은 어디서 어른한테 독촉을 하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이내 일을 관두고 받지 못했던

월급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출근일지나 마땅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늘 주위 어른들로부터 배려의 중요성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오며 자라왔다. 할아버지는 내게 늘 단순히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 역지사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배려를 강조하셨다. 중학교 입학 선물로 받았던 ‘배려’라는 책 또한 늘 곁에 두고 읽으며 책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어른들 뿐 아니라 친구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왔었다. 첫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나를 일하게 해준 주인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해 신경 쓰이는 일이 없도록 힘든 내색은 최대한 하지 않았고 매 행동을 조심했다.

하지만 결국 내게 돌아온 건 조소 섞인 싸늘한 태도뿐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무엇보다 그가 내 사정을 알고도 그걸 역이용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노력하여 실천한 배려가 가져온 것은 잇을 수 없는 상처였다. “어디서 사회생활도 안 해본 게 따지고 있냐는 말 속의 그 사회생활은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나는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되었다. 무작위의 타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배려가 아닌 이해타산이 더욱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릴수록 사람들은 자신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배려는 더 이상 필수적이거나 요구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배려조차 오늘날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성공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외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호구’라는 단어의 의미의 확대이다. 본래는 어리바리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제는 남에게 선뜻 도움을 주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할 때 곧잘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개념이 있다’며 칭송받을 만한 사람도 ‘대인배’가 아닌 ‘호구’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배려를 통해 작게는 남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며, 더욱 나아가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 뒷사람을 위해 출입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에서부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저 없이 사고 현장에 뛰어드는 것 까지 모든 이타적 행동에는 배려가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려는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사회에서 예로부터 중시되어왔던 덕목이다. 남을 위하는 배려의 덕목은 논어에서 또한 그 중요성의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공자는 인(仁)과 의(義) 실현을 통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나의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남의 부모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해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이라면 추구해야 할 마땅한 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이러한 인과 의는 남을 생각하는 것, 즉 배려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진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위령공』)

증자는 자신의 스승인 공자의 사상을 충과 서로 축약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충과 그 마음을 타인에게 미루어 나가는 서. 이 또한 배려와 일맥상통하는 덕목이다. 이처럼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는 그 중요성이 누누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사회는 배려를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지어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상대로 보이는 ‘갑질’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현재 사회에서 곧잘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들은 모두 성숙하지 못한 개인주의로 인해 비롯된 사회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지 않은 지나친 이기심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입시와 취업, 내 집 마련 등 끊임없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나아가지 않으면 뒤쳐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배려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필요성도, 당위성도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배려를 마냥 흘려보낼 수는 없다. 존중과 협동, 책임과 같은 여타 필수적인 사회적 덕목의 근저에 자리하는 것이 바로 배려이다. 배려가 결여된 사회는 인간성이 결여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회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려는 사회로 나아가는 개인에게 사회적 행동의 준칙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나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이어나가고자 한다.

서점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나는 끝없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닐 시간도, 형편도 되지 않았기에 중학교를 자퇴하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응시하였고, 이내 고등학교 또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나는 우연히 내 사정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전액 무료 교육을 조건으로 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입학한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채 5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는데, 특이한 점은 학교 측의 방침에 따라 봉사활동만큼은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나는 인근의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쌀이나 연탄 같은 생필품을 가지고 방문하는 식이었다. 어르신들은 낯선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셨다.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어보려고 해도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으신 채 어서 집에서 나갈 것만을 독촉하셨다. 막연한 회의감이 자꾸만 솟아났다. 안 그래도 당시의 나는 타인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내 주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고생을 해가며 도와드리려 해도 그 도움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었기에 내가 왜 이런 의미 없는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래도 봉사활동을 관둘 수는 없던 노릇이었기에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활동을 계속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자 매 주 꾸준한 방문에 어르신들은 결국 마음을 열었다. 가장 놀라운 건 사실 내 마음의 변화였다. 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에게 정이 가기 시작했다. 전혀 남이었던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며 내 마음도 진정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 역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진정으로 이 봉사활동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된 후 나는 남은 학창시절 동안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신의 말보다 먼저 실천하고 나서 말이 행동을 따르도록 하라.” (『위정』)

공부를 할 때 이해를 완벽히 한 후 암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끔은 암기가 선행된 이해에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다. 과거 아이들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암송한 것도 비슷한 이치이다. 습관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이해되고 내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배려 또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그 가치를 깨닫고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이 계속된다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형성될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참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어느새 남을 생각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은 더욱 큰 사랑과 따뜻함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과 동시에 그러한 배려를 늘 염두에 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아무리 숭고한 이념과 깨우침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직접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실천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게끔 해준다고 공자는 보았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또한 그렇다.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천을 반복하여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도덕의 실천의 시작일 것이다.

“사람들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다.”
(『양화』)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그리고 그러한 배려의 실천에 대한 권유는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상황과 정면으로 맞부딪치며 자칫 우리에게 막연함만을 안길 수 있다. 하지만 그 막연함에 붙잡히기에 앞서 그 실천을 먼저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물질적인 기부를 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봉사와 같은 것이 아니어도 좋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꾸준히 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된 배려의 실천은 남을 위하는 인(仁)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레 깃들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러한 배려의 마음이 구성원들에게 널리 퍼진다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仁)은 두 사람(人+二)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사람이 두 명만 모여도 서로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씨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 즉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인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치국에 앞서 실천해야 할 덕목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사회의 추구는 그 노력 자체로도 우리의 인간다움의 본질을 찾아내어 발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관계’ 내가 21개월 동안 얻은 최고의 수확물

송기승 | 사학과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인문학적 요소들이 여러 부문에서 각광받고 있다. 유럽 등지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분 지 이미 좀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나 빠른 성장, 성과주의에 치이다 보니 인문학적 요소가 등한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변화를 볼 때 이제 그러한 사회기조가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지금까지도 경쟁 속에서 사람들을 키워내고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인문학적 요소를 강조하는 기조를 띄는 것이 모순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결핍이 증가하였기에 이러한 모순도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끝없는 경쟁과 진보를 추구하다보니 사람간의 정, 자기 발전, 삶 속의 고민들의 해결이 결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소위 ‘힐링(Healing)’이 간절히 사회가 되었다.

현대 한국인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된다. 사회속의 대부분의 관계에서 본인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가면 쓴 채로 가식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배출할 통로를 찾지 못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배출하다보니 가까운 관계조차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유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인’과 ‘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학이라는 학문이 잘 알지 못했을 때엔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지 잘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개월의 기간에 알아낸 인간관계의 비법

나는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지 않아서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고민할 일이 없었다.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천성이 경쟁을 싫어하고 ‘다 잘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살아왔기에 더더욱 그런 듯하다.(물론 이 성격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엔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하지만 나도 군대에서는 특수한 사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만 좋은 선임이자 좋은 후임, 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흔히들 군대에서 겪는 수많은 부조리들이나 안 좋은 추억들로 인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기간이었다고들 남들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달랐다. 개인적으로 나는 ‘군 생활을 그 누구보다 잘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공부해서 자격증을 많이 땀거나 지적수준을 남들보다 많이 높여서가 아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기간을 통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수확이 내겐 1년 9개월이란 시간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수확물이라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은 ‘의(義)’로 구성될 수 있는 모든 사회의 모습을 다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임과 후임간의 관계는 밖에서의 부하직원과 상사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부대 밖에서는 친구관계나 친한 형 동생 관계가 되고, 지휘관들을 대하며 나보다 높은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법도 배운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혼재하는

군대에서 느꼈던 점을 생각해보니 유학에서의 ‘수신(修身)’, ‘의(義)’, 그리고 ‘인(仁)의 실천인 충(忠)과 서(恕)’ 이러한 세 가지 개념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내 고민을 다 해결했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충(忠)과 서(恕)로 상사에게 좋은 부하되기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아 진짜 사회와 군대라는 집단에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좋은 후임이 되는 조건이 곧 사회에서도 상사가 좋아하는 부하가 되는 법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수많은 직장인들 중에 상사의 눈치를 안 보는 부하직원이 몇이나 되며,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인 가면을 하루에도 몇 번 씩 바꿔 끼는 지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첫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생활을 시작하듯 군대에서는 누구나 후임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나도 어떻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 고민했었다. 하지만 가식적인 가면은 매일 같이 생활하다 보면 벗겨지게 되어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공자가 “삼(參)아 나의 도는 하나로 일관(一貫)되어 있다.”라고 하자 증자(曾子)가 “그렇군요.”라고 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물었다.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뿐이다.”라고 했다. - 논어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은 마음을 다하여 다른 이를 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일을 하는 ‘충(忠)’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 ‘서(恕)’를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엔 이 구절을 알지 못했지만 되돌아보니 충(忠)과 서(恕)의 실천이 나를 좋은 후임, 지휘관들이 보는 좋은 대원으로 만들었다.

오랜만에 부대에 들어온 막내였던 나와 내 동기들은 선임들의 관심을 한껏 받았다. 그 관심이 좋은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우리들엔

부담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일거수일투족이 그날의 애깃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흔히들 군대에 가면 라인을 잘 타야한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남들도 나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 내가 해야지’ 즉 유학에서 말하는 ‘충(忠)과 서(恕)’의 실천을 하게 되면 다 저절로 알아서 풀리게 되어있는 문제였다. 굳이 선임들과 대화할 때 아부를 하거나 가면을 쓰고 대화하지 않더라도 좋은 후임으로 봐주었고 흔히들 말하는 라인, 즉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선임들이 힘쓰게 되어있었다. 이때의 ‘충(忠)과 서(恕)’의 실천은 내가 1년 9개월 간 한 번도 문제없이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선임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다. 중대장님을 모시는 보직이었던 나는 군 생활 말년에 지휘관 분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일을 하는 일이 잦았다. 그 전에 내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 중엔 아부 발언을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예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때도 굳이 그 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조용히 내 할 일을 문제없이 다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고 일개 대원인 나에게도 의견을 물어 오시고 수용해 주시는 결과를 낳았었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든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어느 집단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오늘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잘 보여야할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상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수신(修身)으로 부하가 좋아하는 리더되기

위에서 다룬 관계와 반대의 가정이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 라는 고민은 리더를 굳이 꿈꾸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리더의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고, 뉴스에서도 하루 종일 대한민국의 리더인 대통령 얘기만 하고 있듯이

리더란 자리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리더는 대통령처럼 국가라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부서 혹은 팀의 대표도 곧 리더이며 하물며 초등학교 반 회장도 리더이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생회나 반장을 할 때엔 딱히 좋은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랬던 내가 군대에서는 멋있고 좋은 선임이 되고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실천해보기도 했다.

내가 최고선임이 되기 전에 난 두 가지 분위기를 겪었다. 막내 시절에는 강압적인 리더가 이끄는 집단을 겪었고, 중간계급 때에는 정말 풀어주는 리더의 집단 속에서 지내보았다. 전자의 경우엔 일적인 문제나 상하관계에서의 위계질서 유지는 잘 이루어졌다. 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낼 수 없는 불만들이 속에 쌓이게 되고 개인적인 악감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반면 풀어주는 리더가 이끄는 집단은 개개인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행복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나 위계가 무너져서 집단으로 모였을 때의 응축적인 힘이 잘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의 집단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답은 ‘수신(修身)’에 있었다.**

공자가 말했다. “위정자가 참으로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 논어

나는 성격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치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강압적인 분위기의 부대에서 많은 후임들이 리더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저런 내 성격을 고칠까도 고민해보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 성격을 바꾸고 생활하는 것도 스트레스이며 결국 남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가면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소위 말하는 째미 차더라도 내 할 일을 완벽히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자였다.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게을러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하다보니 혹시 후임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 지적을 하게 되더라도 후임들이 ‘아 저 사람은 지적할 자격이 있어’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후임들에게 얘기를 들었다. 유학에서는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나를 먼저 바르게 하고 집안, 나라,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라는 얘기인데 모든 기반이 수신(修身)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이다. 예전에는 이 어구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생각했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내가 먼저 나를 수신(修身)하였을 때 내가 이끌어야하는 후임들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물론 단순히 리더가 수신(修身)하였다고 하여 아랫사람을 지적하거나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분대로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며 서(恕)를 생각하며 내가 저 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나를 한 번 생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유학에서 ‘의(義)’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듣지 않으면 관계 유지를 위해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낀 바로는 나를 먼저 수신(修身)하면 상대도 지적을 단순히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자본이다. 황금만능주의가 시작된 지가 오래되어 사회가 내적으로 골병을 앓을지언정 그 전반적인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와의 관계라는 틀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기에 원시사회가 생겨난 것이고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간은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황금만능주의 속에서도 인간이 중시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찾는 ‘힐링’의 방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유학의 관점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황에 맞는 여러 가면을 준비해놓고 바꿔 쓰는 것 보다는 수신(修身)을 통해 자신을 가꾸고 자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를 이뤄내는 것이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우수상

또 다른 ‘나’를 향한 시작, 배려

신재원 | 영어영문학과

현대 우리 사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매순간을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남들과의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도의 성공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자신들을 채찍질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과열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보이는 잣대를 세우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낭비한다.

이렇듯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많은 성공을 이룬 반면에,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도덕과 윤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강조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울 수 있다면, 양심의 가책은 쉽게 저버려도 되는 일이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만

삼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 과거와는 달리 편하고 빠르게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나갔지만, 마음을 나누는 거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먼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의 폭만 넓혀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나조차도 이런 사회의 모습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았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경향은 고등학교 때 그 절정을 이뤘던 것 같다. 대학 입시라는 어마무시한 과제 앞에 놓여진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매순간 모든 일에 계산하게끔 만들었다. 지난 몇 년간 동일선상에 있는 내 또래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온 경쟁에서, 나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나에게도 어느 한 순간,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학생회를 했었다. 그전까지 반장, 회장 등 학급의 장을 맡아온 적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내가 한 축이 되었던 적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2년간의 학생회 활동들 중,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바로 지나친 학습공간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했던 일이다. 우리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자습공간이 매번 부족했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언제나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이 자리를 사유화하기 시작했었지만, 불길히 점차 뻗어나가듯, 점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리를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자습공간의 사유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은 늘어나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단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회의를 통해 나온 방안들 모두를 꼼꼼히 따져보았을 때, 현실성 있는 해결책도 없었고, 당장 실행될 수 있는 대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자습공간에 놓여져 있는 짐들, 즉 사유화된 공간을 치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다 기숙사로 돌아간 밤 11시 40분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에 있는 모든 자습공간에 자리를 맡고 있는 짐들을 다 치웠고, 그 짐들을 학생들이 잘 찾아가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새벽 3시까지 이루어졌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리에 있는 짐이 치워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사유화를 그만두지도 않을 것 같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들게 짐을 옮기는 이 일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었다. 물론 처음에는 내 예상처럼 학생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을 헛수고라 여기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했었다. 시험기간일 때에도 우리는 자습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기숙사로 올라가는 그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더라도 당장 내일 필요할 다른 친구들의 학습공간을 위해 자리를 치웠다.

꾸준한 노력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 우리의 노력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리를 계속해서 치워도 여전히 보이던 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습공간을 정리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정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부족했었을 자습공간들이 사유화로 인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학생들이 점점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당장 느껴지는 피곤으로 인해 투정부리던 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지금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남들은 내 노력을 알아주게 되고 이는 나에게 더 큰 성과로 다가온다. 이게 바로 내가 학생회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다.

고등학교 때 한, 작다면 작은 그 일이 이후 나에게 마음으로는 큰 울림이 되었고 인생에서는 하나의 큰 지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때부터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자세를 다짐하며 실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어찌 보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이 사회에서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다. 과거의 나조차도 그랬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에게 올 이익을 속으로 계산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닌 이해타산적인 마음에서 나간 배려였고,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이익과 관계들이 나중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나에게 뜻 깊은 행동들이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내가 한 다짐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남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는 인의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나 혼자 그런 자세를 가진다고 해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더불어 가는 사회이다. 그렇기에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태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데서 시작된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을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아 인식은 개인의 권리와 자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선이 절하되고,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저하되어 이기심이 만연한 사회로 나아가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현실과 유리된 주체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처한,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나 유가의 개인 인식은 이와 다르다. 유가는 개인을 서로 간의 이해의 상호작용을 갖는 상호주관적 ‘주체’로 이해한다. 그렇기에 나 혼자만의 자아가 아닌, 공동체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의 자아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추구함에 앞서, 먼저 우리가 개별 된 개체가 아닌 서로 간의 이해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아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 자세를 바탕으로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의 자세와 같다. 공자께서는 “무릇 인이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내 마음을 잣대 삼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똑같이 하기 싫다고 여기고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남도 같이 원할 것이기에 상대방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어느 날 공자에게 “한평생 나침반으로 삼아 자신을 이끌어 갈 만한 한마디가 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서(恕)이지!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시키지 마라”고 답변하였다. 공자는 ‘충서’를 자신의 도라고 여겼는데, 충은 나를 진실로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는 나를 미루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께서는 내 마음을 잣대 삼아 상대방의 마음을 미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실로 다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진정으로 상대방과 같아질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소통되어서 인의 자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쉬운 말이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태도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개인의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인간관계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남들과 진실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한 관계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불완전해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와 같이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배려의 자세로 먼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할 것이다.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의 자세를 기반으로 한 ‘배려’는

필수이다. 그러나 모든 배려가 다 같지는 않다. 의도하는 배려는 진실된 배려가 아니다. 내가 먼저 이랬으니, 너도 나한테 이래달라는 조건적인 자세는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없다. 남을 나 자신으로 생각해,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손해만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마음, 즉 배려가 나에게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익에 조바심내지 말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즐겨야 한다.

피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만큼 금방 사라지는 신기루와도 같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폭이 넓다 한들, 그 물질적인 부와 얇고 넓은 인간관계가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는 허상만을 쫓는 삶을 살다 가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와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한다. 중국 송나라의 정명도는 “어진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자신과 한 몸처럼 여긴다. 만물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니 그의 사랑이 어느 한 사물엔들 미치지 않겠는가? 만약 사물을 자신과 다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는 마치 수족의 마비로 인해 혈기가 통하지 않아 수족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내가 먼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배려의 자세를 갖는다면 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또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점점 그 뻘어나가는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 개인의 노력이 합해지다 보면 이 사회 또한 점차 변화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또 다른 나일뿐이다.

[참고도서]

인성교육교재편찬위원회 저,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사람의무늬, 2014.

• 우 수 상

나(我)에게서 너(他)에게로

-치국, 사회로 나아가기-

홍수인 | 경영학과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서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참 좋았다. 마트는 엄마랑 같이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시식도 해보고, 또 가끔은 몰래 넣어놓은 과자를 모른 척 계산해주는 엄마의 선물이 있는 ‘놀이터’였다. 엄마랑 만날 가던 우리 동네 대형 마트 앞 아파트 단지 담장 밑에는 빨강, 노랑, 파란색 파라솔이 위태위태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아래는 우리 할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할머니들이 대야에 이름 모를 채소들을 잔뜩 담아놓고, 한쪽에서는 그 채소를 손질하시며 온종일 앉아계셨다. 할머니와 채소들은 차도 옆에서 매연을 머금고 여름에는 폭폭 찌는 더위에 선풍기 하나 없이, 겨울에는 이완근 시인의 ‘사평역에서’에나 등장할 법한 불을 직접 피우는 난로를 가운데 하나 놓고 365일 자리를 지켰다. 깨끗하고 가격도 싼 대형마트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 품목도, 정해진 가격도 없는 길거리 좌판에는 온종일 할머니들의 말소리만이 있었다. 나 또한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있으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마트를 좋아했다. 하지만 엄마는 꼭 마트에 가기 전에 할머니들께 들렀다. 한 가게에서 모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는

시금치, 저 할머니에게는 상추, 그 옆의 할머니에게는 당근을 사셨다. 양말 하나도 구멍이 나도 꿰매서 몇 년은 거뜬히 신는 “짚순이” 엄마는 ‘덤’이나 ‘홍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할머니들이 더 주신다고 해도 많다며 손사래를 치시곤 꼭 제 값을 치르고 나오셨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마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엄마가 방금 샀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 깨끗하게 손질된 채소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그것이 참 아이러니했다.

평범한 집 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나에게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서볼 일이 거의 없었다. 월드비전에서 하는 ‘기아체험 24시’에서 하루를 굶으며 아프리카 기아의 고통을 느껴보는 것도,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모금활동을 할 때도 연민을 느끼긴 했지만, 진심으로 ‘나의 일’과 같이 고민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나와 거리가 먼 ‘남 일’에 불과했다.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보내던 나에게 어느 날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 일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꾸준히 배드민턴을 할 만큼 운동을 좋아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싫어해서 미술이나 피아노 학원을 가는 것을 싫어했고, 동네 골목대장으로 볼릴 만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나였다. 체육 시간에 발목이 빠근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다급히 아빠에게 전화해서 같이 MRI를 찍으러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양쪽 발목 모두에 ‘박리성 골연골염’이 의심된다고 하셨다. ‘박리성 골연골염’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연골이 닳거나 떨어져 나가 연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이미 연골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양쪽 발목을 모두 수술해야 했고 수술을 받아도 발목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고, 높이 뛰거나 격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어서 움직임에 제약이 크다고 하셨다. 평소와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나에게 매우 충격이었다.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양쪽 발목을 모두 수술하게 되었다. 수술 후 석고 붕대를 하고 입원했다. 수술 1주일

후 수능이 1년 남은 시점이었어서 학교를 오랫동안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등교를 했다. 우리 학교는 거동이 불편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나의 교실은 4층이었고 많은 수업이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교생이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물론 그곳에도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휠체어 두 대를 준비해서 하나는 기숙사부터 학교 계단 앞까지 타고 다니고, 하나는 4층에서만 사용했다. 친구들 도움이 없으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고, 급식 또한 친구들이 교실로 가져다주어야 했다. 이동식 수업은 자연스레 열외가 되었고, 체육대회도 축제도 반에서 혼자 보냈다. 계단 몇 개가 나에겐 큰 장애물이었으며, 비포장도로마저도 힘겨웠다. 한여름 무겁고 더운 석고붕대는 나를 더 힘들게 했고, 통증으로 인해 잠을 깨는 일도 잦았다. 그렇게 6개월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할 수 없는 것’에 ‘좌절’을 느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항상 청해야 하는 나 자신이 ‘연민’의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자발적으로조를 짜서 나의 급식을 가져다주고 이동을 도와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우면서도 한 편으로는 ‘내가 귀찮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봉사활동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만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단순히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 허울뿐인 도움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그 도움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쌍방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축제에서 ‘공정무역’에 관한 부스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은 같은 품질의 상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선호한다. 하지만 공정무역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 내의 같은 품질의 물건보다 더 비싸다. 그럼에도 ‘스타벅스’와 같이 공정무역 제품만을 고집하며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공정무역 지지자들이 있다. 그들은 상품에 대해 ‘제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배움이 짧고, 단순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당시 축제에서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공정무역 상품인 초콜릿과 코끼리 똥으로 만든 노트를 판매했을 때, 높은 가격에 의아해했던 친구들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선뜻 구매해주었다. 누군가의 땀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카카오를 따고 있는 아이들, 땀을 뻘뻘 흘리며 베트남에서 커피를 따고 있을 아주머니들, 큰 칼을 들고 풀숲을 헤쳐가며 바나나를 따고 있을 사내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머니를 여는 ‘인간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성공적으로 팔려나가는 ‘공정무역’ 상품을 보면서도 의문이 들었다. ‘한두 번쯤은 정의감 때문에 더 비싼 공정무역 상품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과연 잠깐의 뿌듯함을 제외하고 공정무역 상품을 사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몇 번쯤은 혹은 특정 제품에 한해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생각에 비싼 값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꾸준한 구매로 이어지고 모든 상품이 공정무역 상품인지 고려하며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공정무역에 관한 관심이 높은 편인 영국에서도 공정무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결국, 공정무역은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는,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를 소비자의 기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일시적인 방편이다.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공정무역을 주관하는 중간상에게 시장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위기나 급변이 도래하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줄타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시장의 법칙을 따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적으로 시장의 한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는 첫째로, 원조가 아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이여야 한다. 봉사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여름 ‘관광객이 지켜야 할 7가지 수칙’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조항은 바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이나 사탕을 주지 말 것’이다. 쉽게 돈과 맛있는 간식을 얻은 아이들은 그것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떨어져 학교에 가는 것 보다 구걸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Richard Thaler의 ‘Mental Accounting’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번 수익보다 보너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을 쉽게 쓰고 소비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진정한 노동에 대한 시장 내의 공정한 평가와 그에 적합한 대가 지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교육이나 관계시설 제공과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현실의 상황을 해결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논어『안연』편 7장에는 ‘子貢이 問政한대 子曰 足食足兵이면 民信之矣.리라. 子貢이 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三者에 何先이리잇고 曰 去兵이니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二者에 何先이리잇고 曰 去食이니 自古皆有死 어니와 民無信不立이니라’라는 말이 있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가 먹을 것과 병력이 풍족하고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야 하며 병력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시점에서 교육이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미래를 위한 투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방향적 도움이나 희생이 아닌 공생관계여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에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Win-Win’ 전략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득이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사례가 바로 ‘올라온 인터네셔널’의 코트디부아르 면화 산업이다. 코트디부아르는 오랜 내전으로 면화 산업으로 유명했던 예전의 명성을 잃고 폐허로 변했다. 내전이 끝났지만, 면화 종자나 비료가 남아있지 않았음은 물론 밭의 상태도 엉망진창이었다.

‘올람’의 면화 공장을 담당하던 ‘줄리 그린’은 코트디부아르에 면화 공장을 건설하면서 제1 목표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면화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삼는다. 농부들에게 품질이 좋은 면화 종자, 농기구, 살충제, 비료 등을 수확을 통해 이윤을 얻은 후에 값을 수 있도록 무담보 무이자로 제공한다. 그를 통해 농부들은 품질 높은 면화를 생산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한다. 올람은 그 면화를 적정 가격에 사들여 가공해 타 회사의 면직물 보다 고품질의 면직물을 창출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한다. 그리고 그 수익을 재투자하여 학교를 설립해 농부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을 통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농부들은 올람이 제공하는 품질 높은 면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숙지해 고품질 대량생산이 가능케 된다. 결과적으로 좋은 면화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올람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농부들은 원조가 아닌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엄마가 할머니들께 몇 천원어치 채소를 대신 구매하는 것이 과연 할머니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까? 아무것도 팔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큰 이익을 얻거나 살림에 보태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처럼 생산자 이력을 표시하고 할머니들이 무농약으로 키운 농수산물이라는 것을 알려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고 할머니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논어 『자로』 5장에는 ‘子曰 誦詩三百호대 授之以政에 不達하며 使於四方에 不能專對하면 雖多亦奚以爲리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학문에 능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내가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경영’이라는 학문을 활용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 일방적 원조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그렇게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점차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며 충족할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치국(治國)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다면 국가 원수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우리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각자가 나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치열한 경쟁과 살아남은 승자의 독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베풀고 나누며 협력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를 통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치국(治國)이다. 나의 능력을 닦아(修身),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齊家), 그것으로 확장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나에게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치국(治國)일 것이다.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장려상

• 장려상

나와 ‘우리’에 대한 책임

김예슬 | 행정학과

2015년 4월 16일, 오후 4시. 언제나처럼 동양사상입문 수업을 듣고 있던 차에 같은 소모임 소속 나와 제일 가까운 선배에게서 카톡이 왔다. 하루인가 이틀 전부터 소모임 단톡방에 세월호 집회 같이 참여할 사람 모집하는 공지가 떴었지만, 내일모레 중간고사를 앞둔 나는 집회에 참여해야 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평소에 꽤 가까이 지내왔고, 소모임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만들어준 그 선배에게서 카톡이 온 것이다. ‘그래 세월호사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지.’ 카톡하는 와중에도 내 생각은 딱 여기까지에만 머물러 있어 같이 갈꺼냐고 묻는 데에 계속해서 우물쭈물 답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대학에 오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도 가지고 다양한 경험도 해봐야지 라고 다짐했던 입학을 앞둔 시절의 내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렇게 갈등에 갈등을 거듭한 차에 결국 소모임 동기 한명을 설득해 늦게나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우리 사회과학대 학회들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다.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된 후였던 저녁 7시의 시청광장. 다소 냉랭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 벌써 수많은 대학생들과 단체들이 광장의 자리를 뱅뱅하게 메우고 있었다. 생각보다 내 또래의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는 것을 보고 집회를 오기로 한 내 결정이 꽤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도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비록 타의에 의해서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 정도의 타이틀을 부여받은 느낌이랄까. 문화제는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했듯이 다소 역동적이고 활기찬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시청광장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아주머니, 중학생, 백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다소 무겁고 우울한 발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몇몇 발언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소 정제되지 않고 감정적이라고 느끼면서도 모순적으로 스스로는 그런 발언들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유가족 언니가 발언 중 눈물을 터뜨린 일이었다. 처음엔 슬픈 어조로 나지막이 속삭이던 그녀였는데 말무리에 가서는 목소리가 커지더니, “대통령님, 이 나라는 지금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펄펄 쏟아낸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치듯이 광장 안을 가득 메웠다. 앉아있는 나는 거기다대고 박수를 쳐 줄 수도,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다른 동기들과 선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로서는 이 감정이 사실 제일 컸었다. 작년을 돌아볼 때, 나는 고3이라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이면 노트북을 둘러싸고 ‘누가 구조되었대, 아니 좀 있으면 전원 구조 된다잖아.’ 등의 얘기를 논하다가도 수업이 시작되면 다시 수능공부에 매진하였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무디게 흘러가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 점차 나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점점 세월호가 역사 속 한 사건으로써 굳어질 무렵 그나마 나를 일깨운 건 마로니에 공원과 학내

대자보에 걸린 게시글, 그리고 노란 리본이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공론화 될 쯤에야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기사들을 다시 들추어보기 시작했던 나였다.

그랬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눈물을 터뜨렸던 그 유가족 언니에게 더더욱 미안했다. 병들어 있는 나라였음에도 꽤나 무감각하고 둔했던 나와 병든 이 나라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던 그녀. 우리는 같은 자리에 마주하고 있었지만 지난 1년의 시간동안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었다.

문화제가 모두 종결되고 나서 유가족들이 앞장선 가운데 광화문 광장으로의 시위가 바로 이어졌다. 앞선 시위대와 사람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등과 같은 다소 격앙된 구호들을 외치며 나아갔고, 나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하나 둘 외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 외쳤다. 시청 앞에서 동아일보 본사 앞까지 행진하던 도중 갑자기 일대 행렬이 조금씩 더디지기 시작하였고 시위대 사람들이 웅성대는 것이 보였다. 의문에 차 앞선 사람들의 머릿 틈 사이로 까치발을 들어서 보니 앞에 뭔가 큰 버스 몇 대가 길게 늘어져 차벽을 이루고 있었고, 그 위에는 확성기를 든 경찰이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말을 반복하여 외치며 우리들의 행진을 막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시위에 처음 참여한 나로서는 이대로 눈에 띄면 잡혀가는 게 아닌지 지레 겁을 먹었다. 그러다가도 분명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 마냥 겁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장시간 경찰들과 대치하던 도중 갑자기 앞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던니 ‘폭력경찰 물러나고 평화행진 허용하라’는 구호로 바뀌 외치기 시작했다. 선배한테 물어보니 시위대의 맨 앞을 이끌고 계시던 유가족 한 명이 차벽 앞으로 다가가자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경찰과의 대치상황이라니. 나는 내가 마치 역사 속 한 장면에 서있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화문까지의 여정은 너무나 험난하고 고된 길이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플래시 때문에 선배들께서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고 설 새 없이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행진은 계속되었다. 갑자기 도로 한복판을 건너던 사이 뒤에서 선배들이 ‘뛰어’라고 외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 깜짝 놀란 나와 옆에 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꼭 붙잡은 채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였다. 마음이 조금 진정된 후 물어보니 경찰의 캡사이신 최루액 때문이었다고 한다. 시위는 새벽 내내 진행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우리 일행은 남을 사람과 집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나뉘었고 나는 몇몇 선배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무언가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만 같은 혼란스러움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인터넷 페이지를 뒤적뒤적 거렸다. 예상했던 대로 유가족들이 경찰의 버스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저항하는 모습이 지상파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경찰의 최루액 살포는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날 난 새로운 세상을 만난 충격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은 채로 겨우 잠에 들어서 다음날이면 조금이나마 가시겠지 라고 생각했건만 오히려 갑자기 맞닥뜨린 일상은 내게 굉장히 어색하고 허무할 뿐이었다.

첫 집회를 다녀온 이후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먼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한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다짐, 그리고 앞으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다.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도 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내 스펙쌓기와 성적 올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도, 깊게 들여다 본 적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집회에 참석해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월호 사태에 대해 무지했고 세월호를 막론하고 여타 우리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이 없었다. 이것이 집회 내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꽤나 어색하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또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적일 수밖에 없던 나였다. 집회에

참여했을 당시 나는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정황과 이에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들에 대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었을까. 또 SNS 상의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사들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智(지))하는 눈이 있었나,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사건이 일어난 정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사건의 결과로서 희생된 아이들을 추모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 아이들을 죽인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이지, 그들은 어떤 연유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인지 온전히 모르는 채로, 나는 무조건 그들을 몰아세워 답답함과 분노, 적대감의 감정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말미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의 감정만 남았을 뿐. 유가에서 말하는 ‘仁(인)’의 마음 (곤경에 처한 남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만이 나를 채우고 있는 전부였다. 이렇게 감정에 의존해 사건을 바라보는 미성숙함으로는 세월호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느라 바빠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관심 갖는 것을 마다하는 소시민들이 늘어갈수록 ‘제 2의 세월호 사건’은 다시금 터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미숙했던 상태에서 참여한 첫 집회 다음 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변화를 기대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었고 결국 사회는 똑같이 흘러가더라는, 그런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욱 배워야했다. 그 후 몇 달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온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세월호 집회에 다시 참가하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나는 적어도 지금의 나와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사회문제들을 ‘잘’ 알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고, 그렇게 첫 집회가 동기가 되어

매일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읽으며 차차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16년의 4월 16일이 되었을 때, 나와 함께 2주기 집회에 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세월 또한 조금씩 변화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지만 그럴수록 광화문 광장은 사람들로 더욱 가득차기 시작했고, 장차 3시간에 걸쳐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만이천여 명의 사람과 함께 맞으며 나는 다시금 세월호를 기억했다. 모두가 묵념의 시간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데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참사 이후 오히려 규제완화에 힘쓰며 기업 이윤을 보장하는 데에만 앞장서는 정부, 안전보다는 이윤이 먼저인 기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할권이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까지.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자기이익이 최고로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곱씹어보았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는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이를 은폐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에는 군자가 갖춘 ‘의(義)’의 마음이 없다. 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며 이득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의 마음이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위치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과 남에게 책임을 다하며 ‘의’를 갖춘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설 수 있는 능력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자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우선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자들에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공통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당장 나부터도 나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바름, 정직의 시작과 끝

김유정 | 경영학과

이번 주와 저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나는 학교도서관과 하숙집이 있지만 중간, 기말 고사 기간에 공강 날이 있으면 종로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내게 코앞에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왜 굳이 종로도서관까지 멀리 가냐고 묻고는 한다. 내가 30분을 걸려서 종로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종로도서관의 위치 때문이다. 종로도서관은 사직단 근처에 있는데 조금 높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위치해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이 하나 나온다. 시험기간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신이 지치는데, 종로도서관은 공부를 하다가 산책하며 기분전환하기도 좋다. 또 종로도서관은 그 위치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도 나를 즐겁게 한다. 학교에서는 버스 272나 171을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다. 버스를 타고 우리학교에서 창경궁, 경복궁을 지나 사직단에서 내리면 된다. 그러면 사직단을 걸어 언덕을 올라가면 종로도서관이 보인다. 버스에 앉아 30분간 그 풍경을 보며 도서관에 가고 올 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며칠 전에도 나는 여느 때처럼 종로도서관에 가려고 버스에 올라탔다.

다행히 앉을 자리가 있어서 두 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중 한 곳에 앉았다. 옆에는 아주머니 한분이 이미 타고 계셨다. 한 정거장 한 정거장 지날수록 버스 안에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다. 그러다 어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한명 탔다. 그 아이는 내가 앉은 자리 근처의 봉을 잡고 서서 갔다. 버스는 흔들렸고 그 때마다 아이도 같이 흔들렸다. 내 옆의 아주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저 앞에 자리가 있으니 가서 앉으라 했다. 그랬더니 아이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와 아주머니의 대화가 조금 더 오갔다. 시끄러운 버스라 아이의 말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의 목적지는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꽤 많은 정류장을 지나야 하는 곳이었다. 아주머니가 재차 권하자 그 아이는 다시 한 번 거절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기는 임산부석이잖아요.”

그 순간 피곤에 지쳐 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며 멍을 때리던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안이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로석에는 뒷모습이 한눈에 봐도 젊은이인 사람이 앉아있기도 했고 심지어 내 앞에 2인 좌석에는 하얀 모자를 눌러쓴 건장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그 사람의 짐으로 추정되는 봉지가 있었다. 아주머니는 아이의 말을 듣고 너는 어린아이니까 괜찮다고 하였다. 나도 저 아이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이라 아직 융통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나는 ‘내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내 행동을 합리화하며 살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초등학생 아이는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함,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아주머니는 그 하얀 모자의 젊은이에게 봉지를 치우고 애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했다. 봉지도 사실 크지도 않아서 자신의 앞자리 바닥에 놓아도 되었다.

그렇게 아이는 자리에 앉게 되었고 나는 사직단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다. 도서관을 향해 언덕길을 오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초등학생

아이만 하더라도 배려와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는, 그리고 다수의 어른들은 배려와 정직함을 잃어버린 것일까. 버스의 배려석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점 큰 것까지 어른들은 배려와 정직이라는 것에 눈을 감아버렸다. 언제부터 우린 장님이 되어버린 것일까.

윗사람이 바른 도를 잃어서 백성들이 흠어진 지 오래되었다. 만일 그 실정을 안다면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 논어(자장)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보고 배운다. 버스 안에서의 초등학생은 어른들의 가르침 속에서, 어른들의 가르침이 담긴 교과서를 보며 배려심과 정직함 또한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르친 어른들은 그 도를 잃어버렸다. 버스 안의 사람들을 보고 행여나 그 아이가 물들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어느새 어른이 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배려심과 정직함을 실천하던 버스 안에서의 그 어린 아이와 같았던 내가 도를 잃어버린 그 어른들과 같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과 편안함을 생각하며,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고, 소인은 혜택 받을 것을 생각한다. - 논어(이인)

사람들은 잠깐의 편안함과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여 마음의 눈을 잠시 가린다. 그리고 사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가린 후로는 계속 가리다가 점점 눈이 멀어버리고 만다. 며칠 전의 버스에서의 일은 일례에 불과하지만 버스가 큰 사회가 되는 순간 그 배려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또 다른 날의 나는 이익과 편안함에 눈이 멀어버린 정직함을 잃어버린 어른인 것이다.

치국은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곧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치국에 앞서서는

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은 자신의 몸을 닦는 다는 것으로 여기서 몸은 육체적은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까지 말하는 것이다. 또한 수신에 앞서서는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올바름, 그 올바름의 시작으로 정직을 행할 수 있고 수신을 하여 치국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신을 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익과 편안함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다.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 자리에서 치국을 하려다보니 세상이 어지러워졌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에 눈이 멀어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아야 하며,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군자가 인을 떠난다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어김이 없어야 하니, 경황 중에도 반드시 인에 의거하며, 위급한 순간에도 반드시 인에 의거해야 한다. -논어(이인)

부유함과 귀함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나 또한 부유하고 귀하고 싶다. 아니 이 세상에서 부유함과 귀함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부유함과 귀함을 얻는다면 이는 옳지 못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을 버리고 부유함과 귀함을 좇은 결과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난함과 천함을 얻는 사람이 늘어났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라면, 올바름을 버린 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이 올바름을 버리고 도를 잃을까 두렵다. 나 또한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경계하게 된다.

사실 지금 당장 ‘나는 정직한가?’라고 나 스스로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정직하지 않은가?’라고 묻는다면 또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때 묻은 어른 그 사이에서 나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버스안의 배려석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었던 나, 신호를 어긴 채 달렸던 나,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 새까만 거짓말을 했던 나를 떠올리니 순간 부끄러워진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던 나, 다수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도 깨끗하게 내 갈 길을 갔던 나를 급히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덜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덜어내고자 해도 내가 했던 행동들은,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은 바뀌지 않는다. 줄타기를 하여 때 묻은 어른들 틈바구니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바로잡고자 한다. 치국, 사회에 나아가기에 앞서 내 마음을 바로잡아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 ‘에이, 괜찮아 이런 것쯤이야~.’라고 합리화를 하며 넘어갔던 사소한 행동들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직한 방법으로 하여 혹시라도 도를 잃지 않고자 해야겠다. 또한 내가 정직함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또 다른 정직함을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공자님께서서는 인성에 대해 ‘성’의 입장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습’에 의해 서로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버스 안의 어린아이와 우리는 모두 비슷한 ‘성’을 지니고 있다. 살면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 ‘성’은 서로 달라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버스 안의 어린아이와 같은 ‘성’을 지닌 어른이 되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직함을 잃어버린 채 ‘습’에 의해 세상과 타협하는 어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올바른, 정직함이라는 마음가짐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직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사회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 장 려 상

행진

김현호 | 기계공학부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너는 커서 뭐할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씩은 들어봤을법한 질문들이다. 우리는 모두 작은 사회에서 출발하여 그 시기가 어떻든 큰 사회로 나가게 된다. 누군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큰 사회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야 직장을 잡고 직장사회에서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과 사회를 이룬다. 가족사회는 가장 작은 사회이며 기본이 되는 것이다. 점점 자라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선.후배들과 사회를 이루기도 하며 직장에서 상사와 후임간의 사회를 이루기도 한다. 누군가는 군대에서 다른 병사, 간부들과 사회를 이룰 때도 있다. 사회란 같은 무리 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을 말하며 그 누구와도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나 또한 가장 작은 사회에서부터 출발하여 여러 가지 사회를 거쳤고 지금도 수많은 사회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 내가 거쳤던 사회들 중에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수능에 재도전할 때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 군복무를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전우들, 그리고 지금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난 동아리 사람들 등이 있는데

어떤 사회에는 이전단계를 밟아야지 다음단계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단계가 있다. 나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을 거쳐서 재수생활을 했고, 수험생활을 거쳐서 대학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같이 수업도 듣고, 쉬는 시간에는 같이 매점도 다녀오고, 시험기간에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는 등의 경험을 토대로 재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나와 같이 수능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보다 더 큰 개념인 대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던 것이다.

먼저 나의 유아시절에는 부모님과 동네 친구들이 있었다.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나 또한 부모님을 많이 사랑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나 이외의 타인과 친밀함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고 그 친밀함을 토대로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자연스럽게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나의 사회가 확장된 것이다. 만약 가족사회에서 내가 부모님과 친밀히 지내지 못했더라면 과연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회로의 확장이 순탄했을까?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님에게서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는 내가 속한 사회가 동네 친구들과의 사회에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 유치원생활로 확장 되었다. 소수의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얻은 나는 더 많은 친구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갔고, 유치원생활에서도 잘 적응했다. 몇 년 후에 역시 유치원사회가 더 큰 개념인 초등학교사회로 옮겨갔고, 초등학교사회에서 중학교사회, 고등학교사회로 더 확장되었다. 그때 마다 나는 전 단계에서 잘 적응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수능을 한 번 더 보기로 결정하고 접했던 재수생활에서 처음에는 고등학교에서 습득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없이 지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단계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 존재하였는데 바로 여자와의 관계였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여서 선배, 후배, 친구들 모두 남자뿐이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남자선생님들 뿐이어서 고등학교 3년간 엄마와 동생을 제외하고 알고지낸 여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주변 상황이 남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자와의 관계가 남자와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 생각이 재수생활에 와서 문제가 되었다. 애초에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던 것이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좀 더 배려가 필요하고, 말도 가려서 해야하는 등의 또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 들을 전혀 몰랐던 나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역경을 겪었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에 의하여 조금씩 극복 할 수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특히 ‘장난’이 많이 힘들었다. 고등학교생활에서는 남자끼리 심한 장난도 치고, 다투어도 금방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남자간의 관계에서만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은 여자와 다투게 되면 서로의 관계를 복구시킬 때 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남자들이 생각한 간단한 장난은 여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심한 장난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 단계에서 겪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다음단계에서 적응하기는 무척 힘들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다음단계의 구성원들에 의해 조금씩 해소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완전히 적응 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적응한 구성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그 구성원들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이고, 결국에는 아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재수생활을 거쳐서 대학교로 사회가 확장되었을 때는 새로운 문화가 추가되었는데 ‘술 문화’라는 것이다. 대학교에 와보니 합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연령이 되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 문화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이미 재수생활에서 경험해본 상황들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없이 대학생활에 적응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술 문화가 나의 발목을 잡았다. 나는 술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체질이었던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문화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

사회 사람들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그 사회 속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사실 대학교사회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대학교사회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무수히 많은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도 학교라는 커다란 사회 내에서 여러 사회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나는 술을 선호하지 않는 사회에 속하게 되었고 그 사회 내에서는 구성원들의 한사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대학교사회에 적응될 즈음에 어쩔 수 없이 특이한 문화를 겪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겪었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사회였다. 그 사회는 바로 ‘군대’이다. 군대사회는 엄격한 상하관계가 지켜져야 하는 사회이다. 지금까지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평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선배, 후배의 경우에는 상하관계에 속하긴 했지만 엄격한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에 가까운 관계였기에 처음에는 군대사회에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엄격한 상하관계를 겪어볼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군대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훈련소에서는 선임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자대로 배치되었을 때에는 갑자기 수십명의 선임이 생겼고,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계급이 가장 아래였다. 그랬기 때문에 군대의 악폐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선임들의 빨래는 기본이고, 가장 먼저 기상해서 계급순서대로 깨우기, 암구호 전파하기, 청소하기 등등 가장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들은 모두 내 차지가 되었다. 사소한 반항도 해봤었지만 군대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때 마다 그들 사이에서 나를 더 배척하였다. 그들은 항상 나보다 높은 지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 옆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따라야만 했다. 물론 지금은 점점 엄격한 계급사회가 완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사회는 계급사회이고, 민주사회에서 계급사회로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 내에서의 내 위치도 점점 상승하게 되어서 점점 내가 담당해야 하는 일은 줄었지만 그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군대사회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 바로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군대는 전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로서 상대방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인지 군대는 다른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폐쇄적이고 규율이 엄격하다. 군인은 외부와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되고 특정 지역을 벗어나서도 안되며 지정된 시간에는 지정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입대하기 전까지의 사회는 개방적이었고 규율은 존재하였지만 엄격한 규율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미 군대사회에 적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회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게 생겼다. 그 갈증을 휴가를 통해서 조금씩은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휴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전역하는 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직장사회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 직장사회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직장사회의 분위기를 보고 직장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직장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사람들을 인턴을 통해 미리 체험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직장사회에 속해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 직장 사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그 직장에서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회의 변화를 겪어오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구성되어있는 직장 내부의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수록 그 직장에 들어가기에 더 수월해지고, 적응을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기 때문에 더 좋은 자격을 가질수록 그 직장에 들어가기에 더 수월해진다.

반면에 우리는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의 사회에 적응 할 수 있어야 해서 그 사회는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을 알면 수월하게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빨리 어울리게 되면 나에게도 좋고 그 그룹에도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한다.

단단한 돌이나 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깨지기 쉽다.
그러나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는 법이 없다.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연한 까닭이다.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라.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즐기치게 흘러,
드디어 바다에 이른다. - 논어 -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기를 고집했다라면 이 세상에서 사회는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이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워야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사람만이 더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넓은 사회로 진출 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사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 고집만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부드러웠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로봇'이다. 그래서 나는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회에 들어가기로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물론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지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더 큰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서 부드러울 것이다.

• 장 려 상

존중이 세상을 바꾼다

박선형 | 사회복지학과

일주일 세 번, 나는 시간 당 6030원 짜리 사람이 된다. 그 때의 나는 우리엄마의 귀중한 딸도, 우리아빠의 어여쁜 막내도 아니다. 나는 딱 6030원 값어치의 취급을 받는다. 그 때의 나는 그들의 손에 들린 80만원짜리 핸드폰보다 함부로 대해진다. 자신의 핸드폰엔 혹여나 금이 갈까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하면서도, 나의 마음엔 자꾸만 자꾸만 함부로 돌을 던진다. 인간다운 존중이 사라진, 6030원짜리 사물으로써 대해지는 그 시간은 참으로 공허하고, 서러운 시간이다. 하물며 평생을 시간당 6030원짜리로, 그보다 조금 더한 혹은 덜한 사람들의 시간은 어떨까?

치열한 경쟁으로 얼룩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되었다. 그들에게는 시간당 6030원의 값어치를 갖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벌금을 낸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내는 고용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 사람을 오로지 생산성을 내는 사물 혹은 기계로서 보는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결정인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휴식시간 역시 비좁은 화장실 한 칸에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식발을 해가며 그들의 처우개선을 외치는 애처로운 그 목소리는 얼마나 그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들의 시간은 눈물로 젖어있다.

공자는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자기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대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가 받는 부당한 처우에는 억울해하고 화를 내면서도, 내가 타인에게 가하는 존중 없는 행동은 인식하는 것조차 둔하다. 당장 나조차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쓰레기를 싫어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내가 휴지통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화장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버린다. 이는 나 스스로 존중받기를 원하면서도, 청소하는 사람에 대한 귀함을 잊은 일이며, 그들의 눈물 젖은 시간에 고됨을 더하는 일일 것이었다.

자신이 청소노동자였다면 과연 비좁은 화장실 한 칸에서의 휴게시간을 원했을까. 자신이 장애인이라면 과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의 결정을 원했을까? 아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문턱조차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마음을 잣대로 삼아 남의 마음을 헤아려본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곧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일은 단지 사회적 약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다. 어느 기업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을 쫓아 몸에 해로운 화학첨가물을 넣어서 혹은 비위생적인 재료와 환경에서 음식을 만든다. 어느 누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몸에 해로운 화학첨가물을 넣어 음식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느 누가 자신이 먹는 음식에 상한 재료를 쓰고, 곰팡이가 핀 프라이팬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 없는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 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서는 부적절한 원료가 사용되었으며, 아기들이 쓰는 물티슈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 또한 가슴기 살균제에 포함된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들은 자신이 철저히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었고, 고통과 비극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 남을 존중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사회가 행복해지기 어렵게 만든다.

나라를 이끄는 고위 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타인에 대한 귀함을 아는 이들, 즉 충서의 도를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충서란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은 나의 마음을 잣대로 타인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이며,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첫째로, 그들의 결정은 무수한 사람들의 이해가 결여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 없는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세우며, 남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또한 헤아림이 부족하면 진정으로 도움 되는 정책이 아닌 위선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고위공직자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을 불신하게 만든다.

하지만 현재 나라를 이끄는 고위 공직자 역시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나오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국민을 경악스럽게 할 정도였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하루 한 끼 챙겨먹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며, 난방비가 없어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떨며 자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소방대원의 장비는 낡아 빠졌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대학생이 존재한다.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제대로 생계비를 벌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하며,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자식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힘든 늙은 노인이 존재한다.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사람에게는 그 어디에도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다. 또한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며,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위선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공익을 가로채 사적이익으로 만든 그들에게,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에게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으로 가득한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리는 만무하다. 예컨대 공자는 식량과 백성의 믿음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식량을 버리는 것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즉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회나 정치가 붕괴함을 역설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자는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은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머리를 숙입니다.” 라고 하였다.윗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이익만을 쫓아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가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윗사람이 욕심을 낸다면 아랫사람도 역시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말은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윗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존중 없는 이기적인 행동은 기업 역시 사람에 대한 존중 없이 이해 타산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고, 기업의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갑질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이끌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를 올바르게 행복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충서의 도를 아는 것이다. 충서를 행하면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로소 바른 정치가 나올 수 있다.

나의 꿈은 가장 가난한 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즉, 한국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일이다. 더욱 구체화 시키자면, 한국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하는 꿈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서의 도를 익히고 그를 실천하는 일이다. 우선 ‘충’, 나의 마음을 진실로 다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에 편견과 고집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타인에 대한 편견과 고집은 타인을 진실대로 볼 수 없게 만들며, 타인의 마음을 진실 되게 헤아릴 수 없게 만든다. 먼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 1학년을 마무리하는 추운 겨울,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가 왔다. 나는 나의 꿈에 정치외교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중 무엇이 더 적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사회복지학과로 마음이 기울었으나,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대학친구들 사이에서는 시험을 망치면 장난스럽게 “사회복지학과 가야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마침 아버지의 친구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나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 분께서는 “네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쫓아야지”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빙그레 웃음이 났고, 자신감을 얻어 “실은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 분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정말 놀라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있다. 고작 그 것을 하려고 뭣 하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까지 올라갔냐는 것이었다. 나의 고모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나를 지지해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도 남의 말을 옮겨 자꾸만 내게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내키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말씀하셨다.

다수의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편견어린 인식은 누군가의 부당한 처우를 만들어 낸다. 사회복지사의 고됨도, 청소노동자의 비좁은 휴식시간도, 일자리를 얻기 힘든 탈북자와 장애인, 노인들의 불안한 생계도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본래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편견과 고집을 가진 마음은 이처럼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일,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남을 진심으로 위하는 생각과 행동이 나올 수 없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나에게 ‘충’이란

가장 우선인 것이며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덕목인 것이다.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책은 오로지 바른 내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서’, 나를 미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즉, 나의 마음을 잣대로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사회에 나아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정책을 만들 것이다. 예컨대 수업에서 노숙자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직접 노숙자로 일주일을 생활했던 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진실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으로 앞서 윗사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아랫사람의 부정부패를 낳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낳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는 혼란하고 행복하기 어려우며, 번영하지 못한다고도 언급했다. 최상의 방법으로는 충서의 도를 지키며, 의를 추구하는 현명한 인재들을 나라를 이끄는 사람으로 올리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어진사람을 찾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현재 한국의 복지전달체계 개편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복지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복지자원의 징수와 배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정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배분은 자원이 필요한 이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며, 자원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한국의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할 것이다. 간단하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원이 필요한 이를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이 맑아지기 마련이고, 이익만을 쫓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사회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옛 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여 끝내는 남을 이루어주었다” 고 한다. 내가 타인을 존중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 자리에서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데 몰두한다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는다. 사람이 사람을 6030원짜리 값어치를 가진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1분 1초가 존중받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기업이 이익만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존중하여 의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정부가 부정부패와 비리로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치는 행복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존중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배려로 다시 한 번 손잡다

– 경험의 키워드keyword로 바라본 대한민국 –

서재현 | 유학동양학과

내 통장에는 늘 200만원이 들어있다. 어떤 상황에서 놓여도 6개월은 자력으로 살아갈 비용을 마련해 두자는 나와서 작은 약속이었다. 그러던 최근 자취를 시작하며 지출이 늘었다. 방에 들어오다 보니 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엄마 생신까지 겹쳐 돈이 반 토막에 다다랐다. 머릿속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엄마 화장대 위의 수분크림이 다 닳아 가던데, 날씨가 건조해져 가는데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스스로 정한 약속까지 무너뜨리며 비싼 화장품을 사드리는 것 대신 좀 가벼운 다른 것을 해드릴까?’라는 두 가지 생각. 이렇게 내 머릿속은 ‘인, 의, 예, 지, 신’과 같은 ‘대의(大義)’보다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사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가는 공간이다.

하루하루를 순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내게 뜻밖의 질문이 불쑥 끼어들었다. 과제를 하며 도움을 받은 외국인 친구에게 보답할 겸 밥을 먹는 자리였다. 이것저것 궁금증을 해결하던 그 친구가 “한국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설명해 줄 수 있어?”라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음... 알다시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의회,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져, 여기에 여러 정당 중 3개의 주요 정당이 있고..”라며 말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 대한 무관심을 이렇게 확인받을 줄은 전혀 예상 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만 그런 걸까?, 이렇게 몰라도 될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집으로 돌아와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포털 검색창을 여닫기도 해보고, 손에 잡히는 책을 열어보기도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로 했다.

무감각

14년 세월호가 가라앉던 밤 노란 리본물결의 시위대로, 그 이듬해 세월호 인양을 외치던 날 의경으로 두 번의 시위를 나갔다. ‘난 세월호 사고 이후 불편했어, 내 일이 아닌데 뭔가 반드시 슬퍼해야만 하는, 그런 슬픔을 강요받은 느낌이었거든.’ 2학년 때, 세월호 사고 직후 우리학교 축제가 취소된 후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무언가 강하게 얻어맞은 느낌이였다. ‘공감’이라는 가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의경의 편에서 시위대의 편에서 두 개의 눈으로 시위를 바라보며 든 생각이 있다. 노란 리본의 물결을 보며, 자식들을 잃은 사고에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정부를 보며 절규하는 가족들의 사이에 나는 방패를 들고 서있었다. 나와 의경동료들은 우리가 비록 경찰의 옷을 입고 벽을 세우고 있지만, 마음 속 만큼은 차마 벽을 세우지 못하겠다는 안타까움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었다. 더 강하게 단단한 벽을 세워야만 했다. 우리의 등 뒤로 ‘시위 때문에 교통이 이렇게 막히는데, 경찰들은 뭘 하고 있는거냐.’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 속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본분을 깨달으며 방패를 쥐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져있는지에 대한 생각, 가장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잔인할 정도로 타인의 일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지 깨달아 가고 있었다. 세월호 인양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정부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점점 무관심해져 갔다. ‘이제는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라며 극성 반대 시위를 벌이는 안티 유가족 집단이 활개를 치기도, 넷 상에서 유가족들을 모욕하며 국가는 도리를 다했다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 왜 우리는, 바다 속에 빠진 별들이 느끼는 물결의 차가움과, 유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의 뜨거움에 공감할 수 없었던 걸까? 나는 ‘만족감’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보기로 했다.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특이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닌, 현재의 딱딱한 삶에,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였다.

만족감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내가 처음 던진 질문이었다. OECD에서 펴낸 ‘2015 삶의 질 보고서 (HOW’S LIFE 2015)’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은 2009년 이후 개선됐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관계망, 건강 만족도 등은 각 34위, 27위로 꼴찌와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응답 항목에선 사회관계망부문에서 50세 이상은 67.58점으로 1위인 아일랜드(96.34점)보다 30점정도 낮았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사람이 없다’를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하루 48분에 그쳤다. OECD 평균은 하루 151분에 달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이익만 추구하려는 생각, 이것이 모두를 힘들게 외롭게 하는 것이다’, ‘나라의 환경이, 혈연 지연주의의 관습이 나를 가로막는다. 우리는 헬조선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헬: 조선’

식상하다. 진부하게 느껴진다. 어느새 부턴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치거나 힘에 부치는 상황에 놓여 질 때 자기위안을 삼는 단어의 대표주자다. ‘어쩔 수 없어, 우린 흡수저니까. 혹은 여긴 헬조선인걸’ 이라고 푸념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왜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지난 2년을 되돌아보기로 했다. ‘한국외대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침몰, GOP 총기사고, 해병대교육장 폭발사고,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 영종대교 106종 추돌, 주한 미국대사 피습,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메르스 확산, 인분교수 사건, 강남역 스크린 도어 직원 사망, 캣맘 벽돌사망사건’ 까지. 여기에 ‘청년실업, 고령화, 안전불감증’까지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게 된 걸까?’ 38가지 코드로 한국인을 분석한 ‘한국인은 누구인가’의 한 심리학자는 한국사회를 관계주의 사회, 현세주의 사회, 배상주의 사회로 분류했다. 끼리끼리 어울려, 빨리빨리 서두르고, 기복신앙에 근거해 만복을 기원하는 사회. 그는 우리사회를 이렇게 진단했다. 난 여기에 ‘눈치보는 사회, 무감각 사회’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눈치사회

작년 통학 길에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발 디디기 힘든 지하철에서 한 젊은 여자가 “아저씨 왜 자꾸 만져요!” 라고 소리쳤고, 순간 만원지하철에 그 여자와 한 나이 지긋한 아저씨를 중심으로 둥그런 공간이 생겼다. 여성분이 몹시 불쾌해 하는 가운데, 그 아저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고 승객들은 헛기침을 하거나 몇 번 시선을 날릴 뿐 모두가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2개 역을 지나치는 동안 수군대는 소리를 빼고는 적막이 감돌았다. 여성분 역시 화는 났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고 분을 삭이고 있었다. 누군가 한명이 저 사람이 잘못했네, 내지는 여성분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만을 건네면 되는 상황임에도 모두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뻔뻔스럽게도 ‘더 말해 보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들로 그 여자를 희롱했다. 유심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문가의 다른 학생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다음 역에서 우리는 그 아저씨를 지하철에서 내리게 했고, 지하철에는 다시 적막이 감돌았다.

눈치사회2

아는 분이 지난 5월, 모 프랜차이즈 김밥 집을 오픈했다. 3일간 주방에서 취사병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가게 뒤편에서 야채를 손질하고 있거나,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뿌듯함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면 따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식당 손님이나 행인들이 지나가며 ‘사내 녀석이, 아무리 일이 없어도 그렇지 쫓쫓, 혹은 남자는 가서 더 힘든 일을 해야지. 주방에서 뭐하는 거야?’라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남성의 가사참여와, 요리에 대한 관심,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난 사실, 위와 같은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해 보려 치면, 다들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기에 급급하다. 부당한일에 고개 돌리고, 정직한일에 눈치를 주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온 터라 나도 어느덧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눈치사회, 한국인들은 너무나 ‘눈치’라는 틀에 갇힌 우리의 모습에 무감각해져 있다. 무감각에서 무감각으로,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16년, 바야흐로 난세다. 자조 섞인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든다. 맨 처음 화두에 던진 ‘무감각’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 우리 삶의 ‘만족감’으로, 헬조선을 거쳐 눈치사회로, 그 눈치사회에서 다시 ‘무감각’으로 돌아왔다. 공자님께서 오늘을 살고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육성으로 답을 들을 순 없지만, 우리에게 경전을 남겨주신 까닭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난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전과 예법을 남겨 놓으셨다.

‘長國家而務財用者는 必自小人矣니 彼爲善之나 小人之使爲國家면 菑害竝至라. 雖有善者라도 亦無如之何矣리니 此謂國은 不以利爲利요 以義爲利也니라’

대학의 10장에 나오는 구절로, 내가 뽑는 치국의 첫 단추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 뜻은 <국가에 어른이 되어 재물 쓰는 것을 힘쓰는 이는 소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재앙과 해로움이 넘쳐나고,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찌할 바가 없다. 이를 일러 “나라는 이를 이로움을 삼지 않고 의를 이로움으로 삼는다”고 한다.> 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로 짚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나라를 다스림에 진실로 이익으로써 이로움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익을 이로움을 삼는다면 인군에게 해가되며, 나라에 어른으로 오로지 재물을 쓰는 데만 힘쓰는 것은 소인에게 이끌린 데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아 위로는 하늘을 노하게 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잃게 되는 것이다. 비록 군자가 이를 돌이키려 해도 어찌할 수 없다. 경전에 좋은 뜻과 진리가 담겨있음에도, 우리는 그 뜻을 체득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다. 답답함은 느끼면서도 경전을 펼치진 않는다.

우리 삶에 경전을 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상징화’였다. 영어로 하면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는데, ‘Symbolization’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주역의 일련의 상징체계와 같은 상징성의 행위가 그것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의 재인식을 거친 학습이 아닌 강한 상징을 담은 예법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다. 상징적 행위의 체득의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고 2때의 일이다. 초기 연예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악플들에 수많은 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시대를 대표했던 최진실, 조성민, 유니, 정다연, 장자연 등의 배우들이 짧은 시간 만에 생을 다했었던 심각성을 가늠하기도 힘든 사건들이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영어교육으로 잘 알려진 민병철씨가 전국단위 선플운동을 전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고등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었다. 마침 뉴스로 접했던 사회이슈에 고등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서였는지 전교생의 80%가 참여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 흐름은 전국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청계광장 등에서 국민들에게 악플의 문제와 심각성을 환기시켰고, 이례적으로 청소년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서 선플에 ‘생명을 구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돼, 연예인들이 악성댓글에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서 성숙한 인터넷 문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엔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 되었음을 기억한다. 이 때, 난 알게 되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징적 움직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동기가 자신의 마음의 방향과 일치하는 행위여야만 확산될 수 있다. 2014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걸릴 때가 그러했고,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세월호의 노란리본이, 촛불들이 보여준다. 시간은 멈춤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대를 관통하는 ‘性(성)’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 치국의 근본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性’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데에 있다.

‘아침을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 시작해 집을 떠나 일터와 사회에서 믿음으로 협업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애정을 나누고,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과 상생하는 하루’

이것이 유학이 추구하는 하루라고 믿는다. 유학의 경전을 공부하고 오늘날의 언어와 형태로 재가공 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이 아침에 그것을 떠올리며 즐겁게 생활 할 수 있을 때 자발적이고 공감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위의 ‘아침을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 시작해, 자신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바를 정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내 이웃의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그 실수를 이해해서가

아니며, 이기심 때문이 아니며, 어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다. 그 역시 나처럼 ‘하루를 자신을 사랑하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과, 직장, 처지를 반추해 볼 때,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통한다. 쉽게 말해,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할 이유 역시, 내가 유익한 지식만을 습득하고 더 좋은 학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을 생각하며 좋은 강의를 계획한 선생님의 마음을, 그가 아침에 했을 다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하늘에서 얻은 하나의 ‘性’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갈망하고 먼저 깃발을 꽂아야만 승리하는 치킨게임의 사회에 유학이 질문을 던질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현대인의 공허한 가슴에 유학이 답을 메워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자발성’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답은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

우리가 올바른 치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임 없이 따라, 집과 이웃을 나라와 천하에 비추는 것이다. 마음을 자애와 헤아림으로써 따라가는 것이다. 무관심과 눈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혈구로써 헤아리는 것이다. 의로써 이로움을 삼는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을 상징화해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마음이 따르는 대로 펼친다면 우리는 이익 앞에 눈감을 수 있다. 이익 앞에 눈감을 수 있는 애정 어린 리더를 싫어할 시민은 없다. 마땅히 의로써 이로움을 삼아 이익을 독차지 하지 않고, 시민들과 더불어 좋아할 수 있다면, 혈구의 도를 얻어 대한민국 안에 화평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단 하나의 마음, 예(禮)

손세환 | 경제학과

2016년 10월 11일은 한국과 이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이 있던 날이었다. 한국이 이번 경기에 승리할 경우 조 1위로 올라서면서 월드컵 진출에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팀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이 달의 선수'로 선정된, 최근 무서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 만약 승리한다면 이란 전 원정 경기에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축구팬들이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였다.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경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란 팀의 강한 압박 전술로 인해 한국 팀은 경기 내내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하였고, 결국 골을 내주어 패배하였다. 감독과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고, 나를 비롯한 많은 축구 팬들을 실망시켰다. 경기 결과에 관한 기사들이 속속들이 올라왔고 이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몇몇의 댓글들이 있었다.

“많이 아쉽습니다. 국가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지 못한 경기였네요. 손흥민 선수는 주어진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다른 선수들도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실망스러운 경기네요. 다음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선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를 갖추어 댓글을 단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손흥민… 나는 애가 왜 국가대표인지 모르겠다. 팀에 도움도 안 되고 질질 짜는 게 다인 놈. 이 놈 때문에 피해보는 선수들이 대체 몇 명인지. 손거품 군대나 가라.” 라는 식으로 비판을 넘어선, 모욕과 조롱의 댓글을 단 사람도 있다. 같은 경기에 대한 극명히 다른 반응.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까? 하지만 이 댓글에서 더욱 눈여겨 봐야할 점은 바로 ‘공감 수’였다. 앞서 예를 갖추어 적은 글에는 공감수보다 비공감수가 더 많았다. 게다가 대댓글¹⁾에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야. 너처럼 낙관하다가 월드컵 떨어지겠다. 임마.”와 같은 비판 글들이 적혀 있었다. 이에 반해, 모욕과 조롱의 댓글은 많은 공감을 받으며 Best 댓글로 선정되었고, 대댓글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감독과 선수들을 비난하였다. 똑같은 경기를 보고 나오는 댓글이 이렇게 달랐다.

수많은 댓글들을 일일이 보고난 후, ‘내가 비정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처음으로 소개한 댓글은 바로 내가 단 글이었다. 평소 축구라면 죽고 못 살 정도여서, 국내 경기뿐 아니라 해외 클럽 팀의 경기도 밤잠을 설치가며 챙겨보는 나였다.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 국가 대표 팀이 항상 ‘침대 축구²⁾’로 일관하는 이란을 속 시원하게 이겨주기를 누구보다 바랐다. 하지만 경기는 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월드컵 진출의 희망이 많기에, 선수들과 감독을 믿기에 질책보다는 격려를 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이런 내 생각과 표현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나보다. 단순히 내 글이 많은 공감을 받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내가 여태껏 지키고 행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쓸쓸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댓글은 스포츠 기사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1) 댓글에 대한 댓글

2) 경기가 유리하게 흐르는 상황에서 일부로 늦는 등의 행위로 시간을 지연하는 치졸한 경기 운영 방식

아니었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기사에 사람들은 ‘헬조선, 흙수저, N포세대’라는 말들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세상을 자조적으로 바라본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있다. 바로 ‘로사다 비율(Losada ratio)’이라는 것인데, 이는 인터넷에서 선(善)플 대비 악(惡)플을 다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선플 1개 대비 악플의 개수는 4개로, 로사다 비율이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니 정말 안타까웠다. 우리들은 왜 그렇게 자조적이며 삶을 비관하는 말들을 쏟아낼까? 그 이유로,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 無以知人也 - 論語 (堯曰)³⁾

공자께서는 명을 모르면 교만해지고 예를 모르면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다. 즉,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知言).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람들이 세상을 회고하고 자조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릴 만큼 예를 소중히 여겼던 우리.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고 회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방과 힐난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한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너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마음을 놓친 것만 같다. 한때, 콩 한쪽도 나누어 먹었던 우리는 지금 그 콩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얼굴에 던지느라 바쁘다. 물질적인 풍요를 갖춘 만큼 정신적인 여유 또한 갖추어야 했는데,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는 여유를 잃었다.

3)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가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 「요왈」)

이 모든 생각은 올해 초 네팔여행에서 겪은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군대를 갓 전역하여 호기롭게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친한 친구들을 모아 함께 네팔로 향했고, 그곳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쌓았다. 먼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무질서한 교통에, 눈과 목을 아프게 하는 건설현장의 먼지들을 이유로 들 수 있고, 내적으로는 상업화된 카트만두의 모습 때문이었다. 네팔 현지인들은 나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바라보았고 여유와 정은 그들에게 사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각박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스포츠 기사에서 본 우리들과 같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트레킹을 위해 방문한 ‘포카라’라는 도시의 분위기는 달랐다.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시 또한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처음 보는 관광객들을 배려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수잔’이라는 여자 아이를 만난 일이었다. 그녀는 길을 잃은 우리들이 도움을 청하자 친절하게 길안내를 해준 친구였다. 포카라 지역을 비롯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었더니 그녀는 우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다음날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지만 그녀의 호의를 기분 좋게 받아드리기로 하고 다음 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과일을 비롯한 집들이 선물을 사서 갔고, 수잔의 가족은 이에 대해 굉장히 감사를 표하며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곳에서 네팔 전통음식을 처음 먹어보았는데 우리의 입맛에 굉장히 맞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먹었다.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은 트레킹을 앞둔 우리들에게 인터넷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현장의 소중한 팁들을 알려주었다. 이전에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우리에게 예를 갖추고 우리와의 만남을 귀중히 여겨주었다. 처음 집안에 들어왔을 때 예상보다 허름하고 누추한 집안을 보고 조금 후회되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에게 내어준 친절함을 접하고 나니 내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예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정(情)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점점 한국처럼

개발되는 카트만두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하지만 포카라에선 느낄 수 있었던 그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를 갖추는 마음 말이다. 그 마음이 최근 스포츠 기사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그리워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논어에서 찾을 수 있었다.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 論語(顏淵)⁴⁾

공자께서는 욕심이 꿈틀대는 마음인 ‘몸 나’를 극복하여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참 나’로 가기 위해 예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셨다⁵⁾. ‘참 나’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목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물’이다. 이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기본인 네 가지, ‘보는 것(視), 듣는 것(聽), 말하는 것(言), 움직이는 것(動)’을 예를 갖추었을 때만 행할 것을 강조한다. 사물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에게 항상 예를 갖추어 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으로 돌아감으로써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치국(治國)을 행한다면 우리들은 좀 더 서로를 배려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친구와 겪었던, 예를 갖추어 행한 일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었다. 부쩍 늘어난 공부량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풀기위해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를 한 잔하기로 했다. 벚들과의 유쾌한 대화와 시원한 맥주는 그간 케케묵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적격이었다. 그 날 우리는 한 잔만을 약속했던 계약을

4)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니, 남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5) 권경자 교수님의 저서, <내 인생에 힘이 되는 논어>를 인용하였습니다. (354p)

암묵적으로 파기하고 얼굴이 달아오를 때까지 우정을 다졌다. 막차를 타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들은 다음을 기약한 채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역으로 가는 길에 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와 조우했다. 친구는 많이 지쳐보였다. 평소에 그 친구가 학업과 과외 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비해 여태 술만 진탕 먹고 온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열심히 사느라 고생한 친구를 치켜 세워주기 위해서 한 마디 해주고 싶었다.

“과외 갔다 와?”

“응.....”

“너 진짜 열심히 산다. 조심히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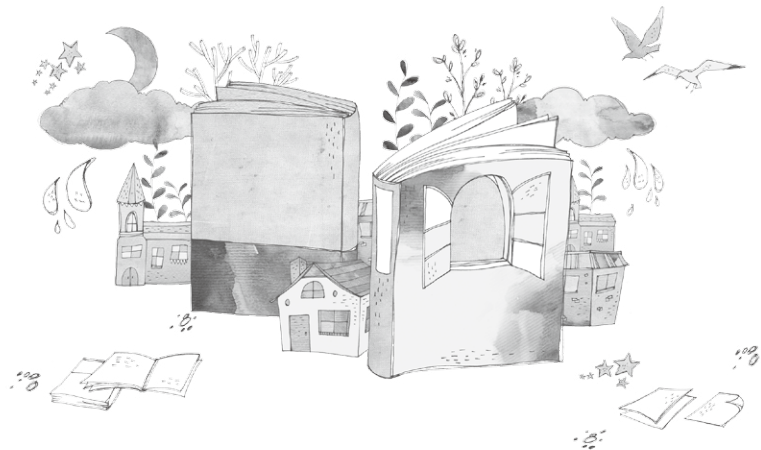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순간 아차 싶었다. 내가 한 말로 인해 그 친구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친구를 복돋우려는 그 말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 필요 있냐? 나는 지금 술도 먹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하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휴대폰을 켜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너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열심히 산다는 말이 오히려 너를 더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힘내라. 넌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친구도 요새 많이 힘들었는데 덕분에 힘이 난다며 고맙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일 이후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털어놓고 힘이 되어주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니 나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것을 예를 다하여 행동하니 상대방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내가 호의로 한 말과 행동이 자칫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을 대하니, 그들은 이전보다 나를 더욱 좋은 친구로 여기고 친절로 화답하였다. 예를 갖추어

말하고, 예를 갖추어 행동하니 나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각박하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믿을수록 배신당하고 의지할수록 실망만 쌓인다. 본인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남을 배려하고 예를 갖추라니,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인으로 돌아간다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어 말을 한다면, 그래도 세상은 어지러울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더욱 예를 갖추어 상대방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예를 갖추어 말을 귀담아 듣고, 예를 갖추어 믿음직스럽게 말하고, 예를 갖추어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러울 지라도, 나는 하나의 예로써 행할 것을 다짐한다.



• 장 려 상

이제부터 호를 시작한다

아마카와레이 | 아동청소년학과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이 말이 정말 싫었다.

나는 6살 때부터 구몬이라는 학원에 다니게 되어 국어와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구몬은 개인의 학습속도나 이해력에 따라 진도를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개인별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는 다른 학원과는 좀 다른 학원이었다. 처음에는 공부가 너무 즐거웠다. 문제를 풀 때마다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엄마와 아빠가 대단하다며 우리 딸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좋기만 했고 뿌듯했다. 2년 정도 됐을 때 문제 문장에 나오는 한자를 읽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국어는 그만 두고 수학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구몬을 4년간 다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싫어진 것은. 나는 공부에 즐거움을 못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엄마의 나에 대한 기대도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엄마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꾸준히 공부를 했다.

어느 날 초대를 받아서 상위자 모임에 나갔다. 전국에서 과목별로 상위자들이 모여서 같이 앉아 문제를 푸는 모임이다. 나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다. 1위 자리에 앉은 유치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 아이가 문제를 속속 풀고 있었다. 난 속으로 “와! 저 아이 미쳤나 봐. 몸만 유치원생이지 뇌는 이미 성인 수준이구만” 이라고 생각했다.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책상 위에 있는 문제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뒤돌아봤다.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는 책상 쪽을 가리키면서 “빨리 해. 시간 얼마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스스로 내 감정을 죽이고 그냥 묵묵히 문제를 풀었다. 문제풀기가 끝난 후 트로피를 받았지만 내 기분은 여전히 다운 되어 있었다. 나와 반대로 엄마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내가 “엄마 기분 좋아요?” 라고 묻자 엄마는 “당연하지. 우리 딸이 상 받았는데 기분 안 좋을 리가 있나~” 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나는 처음으로 엄마한테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았다. “엄마 나 학원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자 엄마는 “왜?”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라고만 대답했다. 엄마 얼굴을 보면서 “엄마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요.” 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 했다. 엄마는 “레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네가 지금 하는 공부는 고등학생 수준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하였다. 내가 원하는 답은 그 게 아닌데...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그 이야기를 한 몇 달 후 엄마가 나한테 갑자기 “레이야, 구몬은 이제 그만 두자” 라고 얘기를 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나 봐! 나는 “진짜요?” 라며 흥분하면서 말했다. 엄마는 덧붙여 “이제부터는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학원에 가야지.” 라고 하였다. 아! 또 공부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흥분했었던 내 심장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5월에 중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 N학원으로 옮겼다. 그래도 전에 다닌 학원보다는 나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N학원에 갔지만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보통 2월부터 개강을 하는 그 학원에서 5월이라는 애매한 시기에 들어간 나에게는 진도를 따라 가기도 막막했다. 일주일 3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학원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숙제를 하기에 바빴다. 2주에 한 번씩 모의시험을 보고 그 순위에 따라 반이 바뀌는데 나는 한 달 만에 가장 레벨이 높은 반이 들어갔다. 그래도 여전히 공부는 힘들었고 지겹고 정말 싫었다.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학교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우리 학교서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다.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예민한 나이였던 또래 친구들 중에서 내가 고립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수학 시간에 앞에 나가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면 일부 친구들은 나를 보며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 하고 말이야.” 라고 비꼬아서 말했다. 엄마의 “요즘 친구랑 잘 안 노네?” 라는 말에 “그것보다 지금은 입시 준비를 해야지요. 쉬는 시간에 놀면 되니까 방과 후에 따로 놀 필요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엄마가 너무 미웠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모든 것은 엄마가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여 나는 무사히 사립 중학교에 입학했다. 학원은 중학교 입시를 마친 후 바로 그만뒀다. 학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설레게 했다. 중학교 입학 후 나는 3학년이 될 때까지 평균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을 즐겼다.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이 코앞에 닥친 어느 날 집에 전화가 걸어왔다. 학교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면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며칠 후 엄마와 같이 학교를 찾아갔다. 엄마는 면담 내내 담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영어와 국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예전처럼 쉽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지 못했다. 나는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했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이런 내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었다. 엄마가 칭찬해주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어느새 “너는 어렸을 때는 진짜 천재인줄만 알았는데~.” 라는 말이 입버릇이 됐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활동했었던 동아리도 그만두었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낙이었던 게 예능 방송을 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에는 일본어 자막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100% 즐길 수는 없었다. 내가 이 언어를 공부하여 자막 없이 이 방송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 다음날부터 나는 엄마 몰래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글을 하루 만에 다 외웠다. 뜻을 알 수가 없어도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다. 나는 공부의 즐거움을 다시 되찾는 것 같았다. 학교 공부도 예전처럼 평균 이상으로 성적이 올라갔다. 그 후로 나는 약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책의 도움도 없이 그 방송만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

어느새 3학년 된 나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 설 틈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당시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라곤 한국어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 엄마와 아빠한테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갑작스러운 나의 고백에 부모님의 대답은 역시나 NO였다. 내 생애 처음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생긴 나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학교 공부도 전보다 훨씬 열심히 해서 3개월 만에 점수를 100점 이상 올렸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3급을 땀다. 이런 내 모습을 본 부모님은 결국 한국 유학을 가는 것을 허락해주셨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¹⁾

나는 처음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만 했었고 내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엄마는 유학을 허락해주신 후 “처음에는 네가 대학 입시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았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마는 항상 응원할 게.” 라고 하셨다. 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처럼 먼저 행동에 옮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엄마에게 “엄마, 엄마가 공부 많이 시켜줬는데 그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자 엄마는 “아니야~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하겠는데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이 나이에 하고 싶은 것 찾는 것도 쉽지 않는데.”라고 하며 덧붙여 “나는 네가 남들보다 눈에 띄게 잘하는 것이 없어서 공부라도 잘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 이제 엄마도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겠다.” 라고 하셨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²⁾

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엄마가 나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를 몰랐던 것이고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공부를 시킨 건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기 전에 내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의심했어야 했던 것이다. 엄마는 자신감 좀 가지라고 나한테 “우리 딸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내가 엄마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이런 오해는 안 생겼을 지도 모른다.

한국에 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현재, 떨어져 있어도 엄마의 사랑을 예전보다 많이 느끼게 되었다.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 고맙고 나도 엄마를 더 아끼고 잘해줘야

1) 子曰 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 (『논어』 「이인」)

2)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논어』 「학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같이 놀아주는 친구들, 학교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 버스기사님에게도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친구, 자랑스러운 학생... 내 주변 사람들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게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다.



• 장려상

애인(愛人)의 마음으로 사회에 나아가기

양다혜 | 국어국문학과

사람이란 순우리말로 ‘살다(生)’가 그 중심 뜻이 된다. 여기서 ‘살림’이 파생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타인을 살리는 존재, 세상을 살리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아니, 그래야 마땅하다. 그런데 갈수록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해야 할 사람다움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다움은 ‘책임’이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 관계 속에서의 삶을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중심 사상인 인(仁)은 ‘人’과 ‘二’이 합해진 것으로, 효(孝)·제(悌)·예(禮)·충(忠)·서(恕)·애인(愛人) 등 다양한 덕목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덕목들 중 핵심은 단연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愛人)’이다.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공경과 예의 등이 결국 모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발전하여 타인에 대한 사랑이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 모두가

하나 된 사회를 이루도록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애인(愛人)이라 부르고 싶다.

과거의 나는 사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어린존재였다. 냉전시대의 기류에 휩쓸려 피로 얼룩진 사회, 달동네 주민과 부유한 자들의 빈부격차,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한 사람, 시류에 편승하여 양심을 버리는 사람 등... 이 모든 것은 학창시절부터 책을 통해 마주했던 세상의 모습이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이처럼 나는 독서와 사색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학생이었고 그렇게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당시 바라보고 인식하고 아파했던 세상의 모습은 늘 책 속에 갇혀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대에 다니던 친구가 자신이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여러 책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 성범죄 등 갈수록 도를 넘어 심화되는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던 때였다. 그리하여 범죄피해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사건을 접할 때 그 사건의 정황, 범인, 처벌여부에만 주목 한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의 눈길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로 범죄피해자이다.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범죄피해자들 중에는 살인이나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를 입었지만 사회·경제 계층적 한계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를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게

규정하고 범죄피해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현실의 일면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들의 곁에는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수님, 경찰, 법조인, 상담사 등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사회 초년생 시절 대형 로펌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며 일을 했었지만, 법적 분쟁으로 삶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비영리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셨다. 늘 비슷한 옷과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지만, 표정과 말투에서 기품이 느껴지는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도 있는 이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¹⁾

이분에게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풍족한 환경과 부를 축적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마다하고 타인의 삶의 평안을 위한 길을 선택하였다. 이는 공자가 말한 배부름과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 군자의 모습과 같다.

1) 『논어(論語)』 제1편 학이(學而) 제14장

또한 일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말투와 작은 행동에서도 늘 신중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민첩하게 일하고 신중히 말하는 군자의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성별·나이·직업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배움을 실천하였다. 늘 당신이 만나는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더 큰 삶의 교훈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좌절 속에서 당장 내일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면서도 하늘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늘 배움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는 도 있는 이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군자의 모습과 닮아있다.

책과 여러 간접적인 매체를 통한 내적인 사유 밖에 모르던 나에게, 이처럼 자신의 온 삶을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 일구어 가는 존재의 모습은 커다란 충격과 감동 그 자체였다. 공자는 수양을 통해 자기를 닦고(修己),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安人) 존재를 군자(君子)라 불렀다. 과거의 나는 내적으로만 修己를 하였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행동을 통한 修己를 함께 병행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봉사 단체 산하의 대학생봉사단 회장으로서는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캠퍼스와 강남역 등지에서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법률상담 기관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열었다. 봉사단 사무실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비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연스레 법(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분야를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터넷 강의로 법 공부를 시작했다. 특히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외국인고용법」과 이주노동자 권리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부실함과 근로조건 정보의 불충분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고, 빈번한 임금체불에 관해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법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상담을 했던 한 사례로 아버지께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공장 일을

하시며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임금이 체불되어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 대학생이 있었다. 또한 그의 주변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업재해로 갈등을 겪고,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한국어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 그동안 학업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보았던 문제들이 바로 주변사람의 삶의 문제였음을 확인하면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먼저 내담자 학생에게 근로계약서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몇 개월 뒤 중재를 거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이며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던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내가 비영리로 활동하는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로스쿨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3년 동안이나 힘들게 공부해도 인권변호사는 비전이 없어.” “결국 돈을 잘 못 벌어서 후회하게 될 거야.” 등… 부와 명예를 갈망하는, 배부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 속내의 은밀한 목소리였다. 어쩌면 내게도 한때 그러한 욕망이 있었을지 모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올바른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로움에서 깨닫는다.”

子曰 君子 喻於義 小人 喻於利²⁾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와 권력을 얻는 데에 삶에 의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을 지향하여,

2) 『논어(論語)』 제4편 이인(里人) 제16장

우리 사회의 변화에 힘을 보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종종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이들 역시 처음에 법조인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사욕을 극복(克己)하지 못하여 예(禮)로 돌아가지 못한 것³⁾이다. 이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과의 경쟁만을 생각하는 타산적인 마음이 인(仁)이 정(情)으로 발현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욕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인(仁)을 발현하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법조인이 있다. 박준영 변호사, 그의 의뢰인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뢰인들이 박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았고, 반대로 억울한 사연을 들은 박 변호사가 그들을 찾아갔다는 점이다. 돈을 받지 않고 몇 년 동안 재심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 그러는 동안 박 변호사는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무료 변론으로 인해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다. 때문에 현재 스토리펀딩으로 박 변호사를 위한 후원의 손길을 모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 변호사가 계속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고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사회에 것처럼 타인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며 인간애를 실천하는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박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률적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고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덕(德)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좇으며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도와 공생을 도모하여 인(仁)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대조적인 두 인간상은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이다.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며 인간다움을 상실해 갈 것인가? 아니면 애인(愛人)의 마음으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상반된 길,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3) 克己復禮爲仁 :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논어(論語)』 제12편 안연(顔淵) 제1장

청년(靑年)들을 위한 치국(治國)

양지성 | 문헌정보학과

2015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새로운 용어가 있다. 바로 “헬조선(Hell-朝鮮)”이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 ‘Hell’과 한국에 대한 자조적 표현인 ‘조선(朝鮮)’의 합성어이다. 자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혐오와 비하의 의미로서, ‘망한민국’, ‘지옥불반도’ 등과 같은 맥락이다.¹⁾ 이러한 목소리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층에게서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어찌다가 이토록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한 번 살펴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년인 20세가 되기까지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다. 이 의무교육은 실질적으로 대학진학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평생을 노골적인 또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과 멸시를 견뎌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업 스트레스는 여러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듯 세계 1위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꼴찌이다. 힘들다는 입시 지옥에서 때론 재수, 삼수를 하며 겨우 대학에

들어갔더니 또 등록금이 걱정이다. 집에서 등록금을 내준다는 학우들을 보면 부럽다. 한 학기 두 학기 정신없이 살다보면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대 영장이 온다. 한 시간에 200원 남짓한 급여를 받아가며 온갖 부조리한 것을 몸소 겪으며 젊음을 바쳤건만 2년 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정병이 대충 코팅해놓은 전역증 한 장과, 공부하고 먹기 살기도 바쁘는데 매년 오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다. 우여곡절 끝에 죽어라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졸업을 하였는데 도무지 취업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른들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80년대에 그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른데 우리의 고충을 모르는 것만 같다. 여차저차 하여 겨우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도 사회란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나니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내 휴가를 내가 쓰는데도 휴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 받는 느낌이다.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연애, 대인관계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한 젊은이들을 5포,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더 한 것을 7포 세대라고 한다. 젊은이들이 이토록 힘들어하니 출산은커녕 결혼하기도 힘들고 점점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하면 청년들이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답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자기 수양을 통해 국가와 천하를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修身),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린(齊家) 다음에는 국가를 다스린다(治國). 그 다음에 비로소 세상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平天下). 현대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다시 말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단계인 치국을 통해 이 문제를 과연

1) 곽아람. (2016), [Why] 망한민국 · 헬조선... 우리 청년들은 왜,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부르게 됐나, 조선일보 & Chosun.com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치국은 평천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치국을 잘하면 평천하도 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치국과 평천하에는 현대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천하에 질서가 있는(天下有道) 시대이면, 예악정벌(禮樂征伐)이 최고 통치자인 천자로부터 결정된다. 천하에 질서가 없는(天下無道) 시대이면 예악정벌이 제후로부터 결정된다. 제후로부터 결정되면 10대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로부터 결정되면 5대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의 가신이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면 3대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천하에 도가 서있다면 국가의 정권이 결코 대부의 수중에 있을 리 없고, 천하에 도가 서있다면 서인들이 국가의 정치를 의론할 리 없다.”²⁾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평천하란 천자가 전권을 쥐고 천자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국가가 운영되는 중앙집권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치국이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며 교화시키는 인정(仁政)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최고 통치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다시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수신이나 제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 개인의 인격을 얼마나 다듬느냐에 따라 가정의 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역으로 올바른 가정에서는 올바른 개인이 양성되기 때문이다. 개인과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과 가정은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진다. 치국과 평천하의 경우, 치국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며 평천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인류 보편의 공통가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치국과 평천하는 우선 청년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올바른

2) 『논어』 「계씨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또 그런 청년들을 원동력 삼아 국가는 국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선순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먼저 수양을 하여 그 도가 타인에게까지 미쳐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를 교화시킨다는 유교적 발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는 사회의 지도자가 먼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한 후에 그것을 사회로 넓혀 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치국을 위하여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한다.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하기 살기 위해서는 꿈이 있고 스스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였을 때 더 좋은 미래가 온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좌절감과 분노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이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제 1차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맹자께서는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향산항심론(恒産恒心論)이다. 백성들이 일정한 생업이 보장되면(향산) 자연스레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변하지 않는 도덕심(항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조선의 인의예지와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유와 평등일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인의예지와 같은 전통적 가치와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청년들에게 물리적인 일자리의 개수를 늘려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공자께서는 “도를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기는 자만 못하다.(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³⁾라고 말씀하셨다. 도(道)라 함은 학문(學問), 기술 나아가 생업(生業)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3) 『논어』 「옹야」

“안다는 것은 들어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요, 좋아한다는 것은 실천하여 그 맛을 기뻐하는 것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知者聞而識其善也. 好者行而悅其味也. 樂者得而享其充也.)”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좋아하여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에서 발표한 바⁴⁾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졸업 전공과 직업 일치 비율은 41%에 불과하다고 한다. 10명 중 4명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은 비율을 보인다. 최소 4년의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직업 만족도까지 떨어뜨리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처음부터 잘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직업에 짝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전공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등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국가에 큰 이익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과거 조선처럼 더 이상 유교 이념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의 의식 세계에서는 아직도 유교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 유교 사상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단편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세대 간 소통의 부재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많은 청년들이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하고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직성과 권위주의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기는커녕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애써 들어간 직장에서 나오기도 한다. 유교에서는 정명(正名)사상이라고 하여 각자가 속한 위치에서 분수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대표적으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君君臣臣父父子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계층의 책임과 의무는 쌍방의 양상, 즉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의무보다는 권리 의식이 강해진다. 분명히 충효(忠孝)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신하나 자식의 간언(諫言)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하가 상사 또는 상관에게 함부로 조언을 했다가는 과심죄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한국 사회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정부도 말로는 국민을 우선시하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오로지 선거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분명히 치국은 위에서부터 인격을 완성하고 그 영향이 아래로 미치는 것이다. 정부부터 각성하고 올바른 사회 문화를 선도해야한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수양하여 올바른 정치를 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청년들이 수신과 제가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회 지도자 개인의 도덕심에 호소한다고 완성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민주 사회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청년 역시 나라의 주인이다. 청년들 스스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다. 즉, 유학에서 말하는 위정자로서의 태도와 자질로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치국의 현대적 해석이다. 정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율곡 이이 선생은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으로서 단순히 이론적인 탐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인 경장론(更張論)을 제시하였다. 이이 선생이 당시의 지식인층이자 사회 지도 계층이었다면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인 것이다.

4) 시민경제연구실. (2015),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50호, 서울연구원

또한, 청년들은 자신이 삶의 현재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겪는 시련이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자께서는 나이 30세에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나 스승을 떠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성장하여 어느 순간 겪고 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것이며, 그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은 구덩이를 채운 다음에 나아가 바다를 이루듯⁵⁾ 인생의 단계를 차근차근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인생에는 역경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인(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덕(德)이 자랄 것이며, 그로 인해 분명히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아울러, 청년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실재하는 권위주의의 잔재로 인하여 고통과 답답함을 느끼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유교의 부정적 잔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것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유학에서는 부모님이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어떻게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학에서는 “부모님을 섬길 때에는 은미하게 간언해야 한다.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또한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더욱 노력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⁶⁾고 이야기 한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상황을 봐가며 미움도 사지 않고 해야 할 말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직장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부당한 일에 무조건적으로 참고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맹자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악으로 대할 때 똑같이 악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5) 『맹자』 「이루장 하」

6) 『논어』 「이인」

덕으로서 되돌려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권위주의적인 상사나 상관도 분명히 그 조직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며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자신이 힘들었을 때의 기억을 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함부로 대하더라도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존중하고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부하 직원의 모습은 호감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예전 자신이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악으로 시작된 것이 덕으로 감싸져 인(仁)으로 전환되고 서(恕)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각각 정치인들과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치인들은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자신의 젊은 시절,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비추어 보는 추기급인(推己及人) 또는 혈구지도(絜矩之道)의 마음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시작되는 인(仁)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적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도 현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인격 수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화에 분노와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 개별상황에서 매사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것이 2400년 전의 개념인 치국이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인사(人事)’의 힘

– 수신(修身), 제가(齊家), 그리고 치국(治國) –

원주미 | 영어영문학과

약 1년 반 조금 넘게 학교를 다닌 동안, 정말 좋은 기억 하나가 있다. 아마 대부분의 성균관대생이라면 다 알만한 분인데, 바로 호암관과 경영관 앞 택시 승강장 쪽에서 차들을 안내하셨던 안경 쓰신 아저씨다. 나는 기숙사생이어서 기숙사 셔틀을 타고 오면 항상 학교버스정류장에 내려서 호암관과 경영관 사이로 걸어갔는데, 그 날은 신입생이 된지 2주도 안 되었을 때로 기억한다. 사실 대학생활이 너무 적응이 안 되고, 그 날은 또 아침 9시 수업이라 매우 피곤하고, 연강수업이라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 날이었다.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푹 숙여서 걸어 올라가는데, 기분 좋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 소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나는 아저씨를 쳐다보았고, 아저씨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아저씨는 그 뒤로도 수업을 들으러 가는 많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험을 보는 날이면 “시험 잘 치세요~! 파이팅!”이라고 하시거나, ‘날씨가 추우니 옷 꼭 여미고 따뜻하게 해서 즐거운 하루 보내라’는 등의 말을 항상 해주셨다. 나는

항상 그 분의 말에 힘입어 강의실로 갔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들었지만, 그 분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주셨다. 바로 ‘인사’의 힘은 어떤 재물과 보석과도 견줄 수 없으며, 그 속에 진정성이 담기면 더더욱 그 효과는 빛이 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들 인사 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이다.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어떤 어투로 하며 또한 친구들한테는 반갑게 인사하라는 것. 또한 공수 방법도 배웠다. 나는 유치원 때 예절교육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따르고 인사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수업이었다. 그 때 인사하는 법, 친구에게 예를 갖추어 말하는 법 등을 배웠던 것 같다. 이처럼 인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인사를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도 있다. 나 또한 그러했다. 그런데 위에 언급했던 경험을 겪고 나서 나의 그 동안의 행동들이 조금 후회되기도 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사춘기, 중학생 때부터 인사를 하는데도 많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스스럼없이 먼저 인사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을 때는 항상 인사하기 전에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다. ‘내가 인사하면 받아들일까? 왜 재는 나한테 인사하느냐고, 어디서 아는 척이냐고 생각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나 자신을 더 비교하게 되고, 또한 또래집단에 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던 사춘기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그저 반갑게 ‘~야, 안녕,’ 이렇게 한 마디 건네며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싸워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상, ‘너 나한테 뭔데 인사하느냐’고 하는 친구들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때는 그런 작은 하나에도 민감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대학생활을 꿈꾸는 나에게 그런 모습들은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 대학에 와서, 새내기배움터에 가서 얼굴 익힌 친구들을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사춘기 때처럼 또 내적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과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또한 가전공 활동을 하지

않는 입장으로서는 뭔가 어색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아니었다. 나를 보면 인사를 해주었고, 심지어 한 친구는 약 1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마주치다가 우연히 보았는데도 반갑다며 인사를 해주었다. 너무 열떨떨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인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인사’(人事)는 ‘사람 인(人)’과 ‘섬길 사(事)’자가 합쳐진 글자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사람을 섬김’이다. 또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뜻이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포함. 또는 그런 행동’이다. 즉, 인사는 사람관계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사’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는 예절이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런 인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과 그 뜻이 통하는데, 이 때 단순히 그것이 꼭 필요한 예절이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해도, 그 안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본질 없이 형식만 갖춘 껍데기에 불과하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즉, 바탕이 형식을 압도하면 거칠고, 형식이 바탕을 압도하면 겉만 번지르르하다. 따라서 형식과 바탕을 잘 어울려야 비로소 군자라는 것이다. 이걸 인사와 연결시켜보면 본질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仁)’라 할 수 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 중 하나로 ‘인사(人事)’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사는 단순하고 사소한 일상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의 가치는 실로 큰 것이다.

따라서 인사는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방향으로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의 출발점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각각의 네 단계를 통해 개인적 수양을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나가면서 나와 남, 나와 사회 및 국가의 관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우선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수신’은 자신을

수양하는 단계로써, 여기서는 즉 ‘나 자신과 타인, 즉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방법은 ‘그와 나를 동등한 위치선상에 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심을 담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깨우쳤으면 이제 실천할 차례이다.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집단이자 단위이지만, 동시에 사회는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제가’, 즉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단계에서는 부모님께 공경심을 가지고 효를 행한다. 이 때 효의 출발점은 바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모님의 문후를 여쭙었다. 부모님이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고,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 예전과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이것과 통한다.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연락을 잘 안하게 된다. 당장 나의 경우만 봐도 본래 집은 부산이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여러 활동과 공부 등 때문에 집에도 잘 못 내려간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하자니 항상 까먹고 시간은 어느덧 밤 12시가 넘어버린다. 그럼 내일 해야지 하고 또 내일이 되서도 까먹는 일상의 반복이다. 물론 <맹자>에서는 ‘너의 삶에 충실’한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지만, 비록 부모님과 짧은 통화라도 그것은 매우 큰 의미다. 또한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향한 진심, 공경심을 가지고 잘 지내고 계신지, 아프시지는 않은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막상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몇 분만 투자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진정성으로 타인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로 나아갈 차례다. 바로 ‘치국(治國)’이다.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단계인데, 이는 결국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어떤 형태이던 간에 서로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바로 이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인사’인 것이다. ‘인사’는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서(恕)’, 즉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방법’과도 일맥상통한다. 나의 경우, 인사를 습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깨달았다. 나의 경험을 예로 들면 첫 번째로, 기숙사를 드나들 때, 입구에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인사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숙사로 들어갈 때 아저씨가 계시면 인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기숙사생인만큼 기숙사를 드나들면 항상 처음 마주치는 분들이 그 분들인데, 그냥 썩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한다고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분들이 나한테 더 잘해주시리란 기대감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내 기분이 좋고, 인사를 받는 그 분들 기분도 좋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숙사 밑에 카페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분들한테 짧지만 웃으면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었다. 이 인사가 계기가 되어 한 아주머니와는 무척 친해졌고, 아주머니는 내 일을 마치 엄마처럼 걱정해주셨다. 끼니 거르지 않았는지 항상 물어보셨고, 기숙사에서 있다 보니 신선한 과일을 잘 못 먹는 내 처지를 아시고는 상품가치가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은 남겨놓았다가 주시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얼마 전에 쉬신다고 카페 일을 그만두셨는데, 그 동안 너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미리 드리려고 사놓았던 핸드크림을 일하시는 마지막 날에 드렸다. 아주머니는 무척 기뻐하셨고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셨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사소한 인사 한 마디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꼈다. 세 번째는 조별과제팀원이었던 사람 중 한 선배와 우연히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넨 후, 계속 만나게 되어 결국 친분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다. 사실 이 때는 저 분이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고, 지금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하는 좋은 언니동생으로 지내고 있다. 네 번째는 기숙사 미화여사님들과 학교를 청소해주는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버린

재활용품들과 쓰레기들은 언제나 수고스럽게 청소해주는 분들이어서 죄송하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기숙사 미화여사님들과는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단 한마디지만, 힘이 될까 싶어 인사를 드렸다. 또한 학교를 청소해주는 분들의 경우,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다. 나는 예전과 달리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것과 달리 먼저 인사를 건네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인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발적으로 우려나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본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도 결국 개개인들이 모여 이룬 큰 하나의 집단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국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저마다의 개성도 다 다르다. 따라서 저마다 생각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바로 이 ‘존중’과 ‘배려’라는 특징을 가진 ‘서(恕)’라는 본질적 요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는 서로 다르다 해서 배척하고, 양극단으로 몰아세우고 서로 물어뜯는 감정싸움에 몰두해,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개인화가 심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도 만연하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잘 이행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비리에 관련되어있고, 사람들은 점점 한국에서의 삶에 지쳐간다. 세상은 삭막해지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삭막해진다. ‘사랑’이 사라진 사회, ‘의’를 저버린 사회, ‘예’가 사라진 사회, ‘지’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 이는 공자가 주장했던 이념이나 사상을 제쳐놓고서라도, 그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슬프게도 현재의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하지만, 그걸 바꿀 이 또한 우리다. 혹자는 이미 사회구조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봤자 바뀌겠느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지닐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이고 우리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구하고 예를 행하고 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사'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성녀로 칭송받는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그녀의 말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은, 웅덩이에 작은 튀김으로 인해 물이 전체로 퍼지는 것과 같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인 말과 행동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또한 신대륙개척자였던 윌리엄 펜은 '진심에서 나오는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밝은 양심에서 나오는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사람의 진정성이 우러나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처음에 애기한 아저씨의 인사로 인해 나 또한 진심을 담아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를 통해 나를 가꾸고 닦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오늘도 나를 웃음 짓게 한다.



• 장려상

親舊, 사회의 시작점

정진규 | 건설환경공학부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 20살, 2013년 1월 1일이 되던 그때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꿈에도 그리던 대학생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던 그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 앞으로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두근거리지만 두렵기도 하였다. 물론 사고방식은 이미 나 자신을 지성체라 여기면서 행동했지만 학교에서 부모님께서 준 커리큘럼이 아닌 점을 하는 것은 나를 움츠려들게 만들었다. 수많은 고민 중 가장 떠오르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 학교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같은 지역 출신, 같은 초·중학교 안에서 봐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사귀기 쉬웠지만 대학교 친구는 단지 성균관대학교라는 한 틀만을 가져 왠지 막연하기만 하였다.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지게 되었고 그럼 그럴수록 확고한 정체성보다는 점점 더 혼란만 가중되었었다. 원래 가졌던 이미지를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가진 채 대학생 1학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막상

시작한 대학생의 삶은 내가 왜 고민에 빠져 있을까 할 정도로 순탄하게 흘러갔다. LC선배, 동기들과의 만남, 동아리 내에서의 술자리와 활동들, 중·고등학교 멘토링 교사로서의 위치 등 정말 하루하루가 재밌는 삶이었다. 그러나 내가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라는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대학교의 삶 때문이었다.

여기서 ‘親舊’는 ‘친할 친’ ‘예 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며 사전적 의미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혹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을 뜻한다. 그렇지만 대학교내의 친구는 참으로 다양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같은 수업을 들으며 생성된 조별 과제 내의 친구, 같은 LC라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받은 선배의 연락처, 같은 동아리지만 어색하기만 한 친구들, 같은 대학교의 친구의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형성된 만남 등 친구라고 칭하기엔 너무 마음불편하고 떨떠름한 사이였다. 그렇지만 그들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나를 보며 왠지 모를 위선자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다. 하루하루 이러한 행동들은 나의 마음을 거슬리게 되었지만 변화될 수 없는 내 자신의 삶 때문에 점점 지쳐가기만 했다. 누구에게 터놓을 수 없는 고민들은 점점 태산만큼 쌓여만 가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게 대학교의 삶에 대해 설레었던 것 스무살 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회의감도 들었다. 그러던 중 논어의 한 구절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이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구절이 되어버렸다.

- 子曰：人之生也直하니 罔之生也면 幸而免이니라.

- 자왈：인지생야직하니 망지생야면 행이면이니라

-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은 정직함이다. 사기성이 있는 사람은 결코 살아 갈 수 없다. 그 중에 혹 있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 죽지 않았을 따름이지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정직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늘은 그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주실 것이다.

- 논어：雍也(옹야) 제17장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고민들의 근간은 바로 정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어쩌면 사람들에게 잘 비춰지고 싶은 욕심 덕분에 내 본질을 숨기느라 노력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익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은 아니었을까? 술 한잔을 기울이면 번호를 교환한 선배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 진정한 벗처럼 지냈으면 혹은 조별 과제를 하면서 나의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진정 따뜻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행했더라면 내가 가진 고민은 별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앞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면 과거 그 순간에 아니 지금부터라도 발생할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나 혼자만의 고민이었는데 그걸 없던 나로서는 타인을 대하는데 망설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일까.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 - 대학

수신은 자신을 수양하고 가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격물치지 성의정심을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본바탕 그대로 응시하고 파악한다면 나의 번뇌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술선수범한 태도로 일관되게 꾸밈없는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신 첫 이행이라 본다.

子曰：仁遠乎哉 我欲仁 斯仁 至矣

자왈：인원호재 아욕인 사인 지의

(인(仁)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곧 인에 이른다.)

- 술이

이 구절처럼 수신을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렸고 내가 진심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행해왔던 고민들은 이전까지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이 있었기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며 마치 날것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끊임없이 수양을 통해 수신을 이루고 자아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한다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의 완전함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한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子曰：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오 其不善者而改之니라

자왈：삼인행에 필유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이종지오 기불선자이개지니라.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거나 혹은 행동을 함께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선한 점을 골라서 그것에 따르고 선하지 않은 점을 골라서 내 자신을 바로 잡는다) - 논어：술이

사회라는 한 틀에서 개인이라는 존재는 영향력이 미비한 아주 조그마한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타인의 행동과 언어에 귀 기울이며 좋은 점을 배워 따라간다면 이는 티끌이 아닌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신 구절에서 내가 배우기보단 친구가 수신을 통해 정직함을 갖추고 있는 나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때로는 융통성이 결여된 모습일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친구들도 이런 나에게 동화되지 않을까싶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행동이자 무모한

가정일 수도 있다. 어쩌면 수신을 통해 정직함을 이르기까지 그전에 했던 행동들, 편이하려고 했던 마음 등을 통해 다시 나를 가려버리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숨어 버릴 수도 있다. 선한 행동을 알려주기 보다는 오히려 악한 점을 본받고 더욱 도태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민에 빠져 회의감이 들던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스무살이 되었을 때의 설레던 마음을 간직한 채 고민에 빠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 자신을 가꾸고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보다는 참된 나를 보여줄 것이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가깝지만 어느 순간에는 가장 멀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의미처럼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나와 다른 인형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자신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 모습이 벗겨지는 순간 그 관계가 소원되거나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다르게 나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그 친구와의 생각과 반대라는 이유로 친구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옳은 것일까. 선뜻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렇지만 근묵자흑이라는 말처럼 내가 먼저 올곧은 마음으로 정직함을 실천한다면 내 주변 친구들 더 나아가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물론 치국으로 가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참된 모습으로 바뀌고 더 나아질 수 있게 교우들과 협력하여 앞으로 다 같이 사회로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지를 것이다.

[참고자료]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 인성교육교재편찬위원회 지음, 사람의 무늬, 2014

논어강설 -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발 행 일 2016년 12월

기획 · 편집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호암관 2층 50217A

전 화 02) 760-0165~6

- 본 수상작 모음집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균인성교육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본 수상작 모음집은 성균인성교육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